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4월 25일)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유튜브 속 불교 반감 돌파구가 필요하다

[진단] 유튜브 전성시대, 불교 명과 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스님들의 인기와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유튜브 속 떠들썩한 법석에 대한 반감이다. 이와 함께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는 콘텐츠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불교계 대표 힐링멘토로 꼽히는 A스님은 지난해 말 베스트셀러 책을 내고 방송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만큼 반감을 사고 있다. 다음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A스님과 연관된 감정분석에서 '좋은' '밝은' 등 긍정적 감정과 함께 '싫다' 등 부정적 감정도 함께 제시된다. 커뮤니티상 관련글의 긍·부정 상세분석에서도 약 25% 가량이 부정적 메시지를 띄고 있다.

A스님이 올해 3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독자가 2만8000여 명에 달하는데, 스님은 한때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구독을 부탁해 당시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 광고수익 전액을 어르신 급식 사업에 기부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지난 4월 스님이 유튜브에 올린 1만 명 구독자 감사 인사 영상 또한 세간의 지적에 현재 삭제된 상태다. SNS상에서는 해외 국적 교포들의 한국 활동을 비꼬는 '검은머리 외국인'(검머외)에 빗대어 스님의 국적이 미국인 점을 들어 '민머외', 스님의 님을 뺀 호칭까지 나돌고 있다.

일찍이 유튜브에 진출한 불교계 대표 저명인사 B스님의 경우도 최근 안보상황과 맞물려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하다. 유튜브 구독자 수 50만명에 누적조회수가 5억4000만 뷰에 이르는 B스님은 5월 초 대북 인도지원차 방북해 화제가 됐다. 이 스님의 썸트렌드 상·부정 상세분석을 보면 부정적 여론이 30%를 넘는다.

활발한 활동만큼 반감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아직 대중에게는 스님이란 고유 이미지가 남아있고, 여기에 기대하는 면이 있다. 다양한 활동을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지만 이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며 "결국 불교 전법을 인기있는 일부 스님에 의존할 수 없는 한계가 여기서 나온다. 불교의 내재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스님을 위장한 몰카 등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X님, 수X한녀석들 등의 유튜버들이 스님으로 분장해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 논란에 쌓인데 이어 최근 유튜버 배X빌라와 덕XTV 등에서 아예 승복을 입고 '스님이 홍대에서 번호를 딴다면' '미X 스님 몰카' '스님 변장하고 교회서 예배보기' 등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영상은 올해부터 몰래카메라 자작극으로 조회수 70만회부터 300만회까지 많은 이들이 시청했다. 잠잠했던 유튜브 속 불교 폄훼 콘텐츠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 멘토 스님들 채널 개설
인기 좋지만 20~30% 부정적
불교·스님 비하 콘텐츠도 증가
혐오금지법 제정 목소리 높아
"리터러시(식별) 교육에 관심을"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인 미디어가 늘어남에 따라 미디어간 경쟁도 심화된다. 종교에 대한 희화화나 왜곡 등으로 주의를 끌고자 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혐오금지를 명시한 법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콘텐츠를 가려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식별) 교육 등에도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팟캐스트 등을 운영하는 박유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젊은 세대들은 영상 소비문화에 익숙하고 종교를 넘어 자극적인 영상을 찾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구독과 조회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이들이 더욱 많다"며 "하지만 명상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세대들도 많기에 유튜브 내 불교의 본모습을 보여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禪 세계화, 이곳에서부터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센터가 문을 열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5월 23일 '가야산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총 5개동으로 이뤄진 선문화체험관은 참선부터 다도, 사찰음식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사진은 참석 내외빈들이 개관을 기념하며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A3면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선종사서 '대행선' 위치·위상 살핀다

대행선연구원, 6월 15일 제3회 학술대회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개최
전문 학자 6명 발표·토론도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선사(1927~2012)의 선사상이 선종사에서 어떤 위상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6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문학자 6명이 선종사 안에서 대행선의 위치와 의의를 조명하는 논문들을 발표한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수행 비교연구- 니까야(Nikāya)와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를, 이석환 동국대 교수는 '하쿠인(白隱)과 대행의 대중포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오지연 동국대 교수는 '법화천태 교관과 대행선'을,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한국 근대 선불교의 개혁 노선과 깨침의 사회화'를 대중에게 전할 예정이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를, 오경후 동국대 교수는 '한국 선종사에서 대행선의 가치'를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동국대 교수 정도 스님, 조준호 동국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최동순 동국대 교수, 박인석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올해는 대행 선사가 탄생한지 92주년이며, 열반하신지 7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선사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정진했고, 증득한 바를 일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했다. 선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홍익중생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니 대중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때 이른 더위 속 하안거 결제

조계·태고종 2000여 수좌들 정진 들어가

때 이른 더위도 대오견성을 향한 운수납자들의 방부를 막진 못했다. 5월 19일 불기2563(2019)년 기해년 하안거 결제가 전국 100여 선원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여름과 겨울에 각각 실시하는 하안거와 동안거에는 조계종에서 안거마다 2000여 명의 수좌들이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화두참구에 나선다. 태고종 역시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해 전국사찰에 수좌들이 참여, 납자의 본분을 다하고자 정진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를 맞아 "여름과 겨울에 사부대중이 모여 결제하는 수행전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훌륭한 전통"이라며 "결제에 임하는 대중은 다시금 결제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반드시 대오견성하겠다는 용맹심으로 임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역시 "총림에서 정진하는 납자나 자기 사찰에서 정토염불기도 하는 종도나 마음 찾는 공부는 똑같다"며 "이번 한 철에는 분별시비하지 말고 원융화해 큰마음으로 부종수교의 본분을 다하는 승가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정·총림방장 법어 A7〉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번뇌煩惱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救援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의례 논란에 부쳐

지난 5월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한 사찰에서 진행된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합장과 관불(灌佛) 의식을 거부했다고 하여 모든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이며,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믿고 따르는 종교와 신앙 생활을 존중합니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남의 신앙을 폄훼하거나 다른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모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을 한 것은 자연인 황교안이나 독실한 기독교인 황교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참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기 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입장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의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를 넘어 상식과 합리성, 존중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앙에만 투철했던 황교안 대표로서는 불교 의례를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날 이렇게 우려할만한 언행을 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한과 보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는 어떤 무력이나 현란(絢爛)한 정치나 어느 한 이념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던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발표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예하의 봉축 법어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 개인을 위한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와 권위의 시대를 지나 민주와 평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획일화하고 통제되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고,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범주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특히 지도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자세를 가장 잘 실천해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사회통합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할 책무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섬기지 않는 스승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지식인이자 교양인으로서 그 예를 갖추는 것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 사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지 우려됩니다.

십여 년 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장에서 거룩한 인류의 스승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직접 일러주신 종정 예하의 봉축 법어를 황교안 대표님께 전해드리며 그 뜻을 화두삼아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깊이 참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번뇌煩惱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救援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불기2563년 5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법산 스님 등 승가학원 이사 선임

5월 21일 이사회서… 해주 · 본각 · 정안 · 성행 스님도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로 법산 · 해주 · 본각 · 정안 · 성행 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원행)은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선임 및 2018년도 법인 및 대학 자금운영결산 심의안건 등이 처리됐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4명의 후임이 선출됐다. 기존 법산 · 해주 · 정안 스님은 유임됐으며, 효탄 스님 후임으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으로 지난 4월에 취임한 성행 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 감사 우하 스님은 유임이 확정됐으며, 약사암 일심선원 한주 성곡 스님이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이사회는 지난 2018년도 법인 및 대학자금운영결산을 심의했으며 법인 및 대학 합산결산 61억6355만8091원을 승인했다.

앞서 이사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총장 스님이 취임 이후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사 스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보광 스님, 교비 횡령 혐의 '무죄'

대법원 5월 16일 '검사 상고 기각' 판결



교비 횡령 등으로 쟁송 중이었던 동국대 前총장 보광 스님<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5월 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 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보광 스님은 총장 선출 의혹을 제기한 학생 4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 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교비로 지급하게 한 의혹을 한 불교시민단체로부터 받았으며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 결과 1심은 보광 스님의 횡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교비 지출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임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지시했거나 사후 이를 승인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보광 스님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후 홍미정 담당변호사는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관련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신도 연수, 수행으로 전환

5월 31일, 봉정암 시작으로 6개월간 총 5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2019년 신도조직 실무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대표 수행도량 5곳을 순례하는 '2019 수행바라미' 정진 연수를 시작한다.

첫 번째 수행바라미 정진 연수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봉정암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박 2일에 거쳐 참배 및 기도 정진하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주최하고 중앙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 신행체계 확립을 위해 '재가자를 위한 5대 수행법'(계율 · 간경 · 염불 · 참선 · 보살행)을 매회 주제로 삼아 진행된다.

신도단체 실무자 연수는 그동안 미얀마, 인도 등 해외서 진행됐지만 수행 정진 차원에서 올해부터 국내 5대 기도처에서의 수행연수로 전환됐다.

참가 대상은 종단등록 신도단체 및 유관단체 실무자로 회차별 각 20여 명씩 모집해 10월까지 5차례 실시한다. 실무자들은 연수를 통해 5대 수행법에 대한 법문을 듣고, 정근과 참선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시동… 마찰 예상

6월 27일 확정, 호명 · 성오 · 능해 · 지홍 스님 하마평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총무원 집행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사진은 제2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투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현재, 차기 총무원장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사회법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물러나지 않으려는 집행부 측과 불신임 결정을 내린 중앙종회 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5월 22일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선거일은 6월 27일 오전 11시이며, 선거장소는 미정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은 종단 재적승으로 연령 55세, 승랍 3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적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공권정지 징계를 받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찰분담금 미납자, 승려의무금 미납자 등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6월 4일까지다. 다만 현재 종무행정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제26대 총무원장선거 당시 교구별 선거인단 배정수를 준용키로 했다. 선거권자는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인단,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및 본산급 사찰 주지(봉원사 · 선암사 · 청련사 · 법륜사 · 백련사)다.

현재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4~5명으로 압축된다. 순천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과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 스님, 지난 총무원장선거에 출마한 인천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과 前태고보우승가회장 지홍 스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후보자 등록 5월 30일까지
연령 55세 · 승랍 30세 이상
선거인단 선출 6월 4일까지
편백운 총무원장 소송 대응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거쳐 불신임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사회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어 종단 내홍이 한차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편백운 스님은 현재 자신의 불신임 무효 소송과 직무대행 성오 스님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총무원 측은 △8명의 종회의원이 총무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업무상배임 및 횡령이 지방검찰청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점 △법원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 차기 총무원장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회법 제소 결과가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6월 중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는 총무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진 종회의원들 중에 승려의무금을 내지 않은 인물이 많다. 의무금 미납 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중앙종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종회 측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명령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적 하자가 없는 점 △불신임 결의는 사회법 결과와 무관 등을 반박근거로 내세워 맞서고 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법적 · 제도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임시회를 거쳐 종법을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도 총무원은 청사를 폐쇄하고 종무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도들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존중 · 이해 갖추지 못해 우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의례 논란에 입장문 발표



은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행사 내내 공수자세만을 취하고, 관불의식도 거절했다. 사진제공=BBS불교방송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은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 · 반배 · 관불 등 모든 불교의례를 거부하면서 물의를 일으키자 2006년 당시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가 다시 등장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는 5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의례 논란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평위는 "황 대표가 믿고 따르는 종교와 신앙생활을 존중한다. 다만 황 대표가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자연인이나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정당의 대표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참석한 것이 분명함에도 개인의 입장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이어 "황 대표의 모습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를 넘어 상식과 합리성, 존중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이 황 대표 개인을 위한 행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평위는 "설사 내가 섬기지 않는 스승이라 하더라도 지식인이자 교양인으로서 그 예를 갖추는 것조차 손사래 칠 정도의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사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지 우려된다"며 "10여 년 전 법요식장에서 거룩한 스승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직접 일러주신 종정예하의 봉축법어를 황 대표님께 전해드린다. 그 뜻을 화두삼아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깊이 참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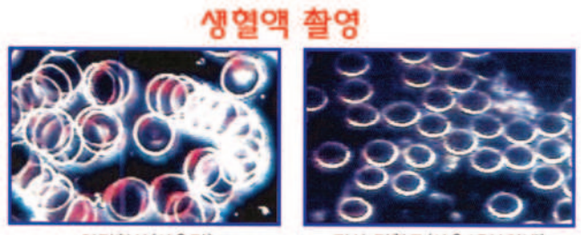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한편 황 대표는 5월 12일 영천 은해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지만 행사 내내 합장이 아닌 공수(拱手) 자세를 취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사홍서원 등 불교의식이 진행될 때 목탁에 맞춰 반배조차 하지 않았으며, 다른 내빈과 함께 가장 먼저 관불의식 참여자로 호명됐지만 손사래를 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황 대표는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할 때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해 불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간화선 세계화 기지, 가야산 우뚝 서다

해인사, 23일 선림원 개관
2017년 착공 이후 2년만에
200명 수용해 禪수행 가능
다도, 사찰음식 등도 체험


해인사에 신축된 선문화체험관 전경. 선림원과 휴휴정사 등 5개 동으로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선과 다도, 사찰음식 등 불교 수행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진기지가 가야산 해인사에 우뚝 섰다.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5월 23일 가야산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선림원 개관식을 봉행했다.

가야산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선림원'은 지난 2015년 10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이 체험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됐다. 해인사 화장원(華藏院) 터에서 2017년 6월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18개월 간의 불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총 5개 동으로 이뤄진 체험관은 해인사 국제선센터 선림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100만명이 넘는 내방객들의 참선 수행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된다. 가장 중심에 있는 선림원은 건면적 285.12㎡으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정면 7칸, 측면 5칸, 팔작지붕의 전통 한옥 건물로 가야산 정상과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선방으로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휴휴정사는 1, 2층으로 나눠 운영된다. 1층은 세미나장이자 다도,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은 템플스테이 숙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면 13칸, 측면 4칸으로 구성된 무아정사는 객실 및 휴식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경쟁 속에서 남과 비교된 내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난 나의 본래 모습, 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안심법이고 이를 찾아 전문적인 명상처를 찾아 가는 것이 복잡다단한 이 시대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흐름"이라며 "이곳 가야산 맑은 숲 속에 와서 쉬고, 선을 체험해 안정을 되찾고 힐링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림원이 제대로 된 안심처가 될 수 있도록 선림원장 소임을 맡은 진각 스님과 총림 대중들은 달마, 혜가 스님 같은 조어사 역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주지 향적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림원을 신축한 것은 서양인들이 한국 선불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해인사를 찾아와도 그들을 위한 선원이 없어 아쉬움 갖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발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교 초월해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새로 건립된 선림원이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이끌어주길 기대했다. 원행 스님은 "해인사가 치열한 정진력과 수행으로 쌓아올린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선문화체험관을 개관하게 됐다"면서 "선대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우리들의 정진 역시 평화세상을 만들고 백만원력을 결집해 미래불교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보종찰 수행도량의 품격을 더하고 세계인들이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명소로 잘 활용되길 기원한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문준희 합천군수, 하창환 前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산 스님 그 아픈 마음 언제 거두시겠어요"

신흥사서 5월 16일 오현 스님 입적 1주기 추모 다례재

추모 세미나, 책 출간 등
다양한 추모 행사 잇달아
공적비와 기념관 건립 등
추모 선양사업 펼칠 예정

"무산 스님 어딜 가셨어요. 잠시 돌아 앉아 하고픈 일 있어 적정 삼매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셔서 그곳 중생들 마정수기 하셨습니까. 도솔천 내원궁에서 목청껏 무생곡을 불렀습니까. …(중략) 속히 대적 삼매에서 깨어나소서. 영남루에 봄바람 일어 천하가 태평합니다"(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추도사 中에서)

강원도 속초 설악산 신흥사는 5월 16일 설법전서 신흥사 조실을 지낸 설악무산 대종사 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무산 스님과 평생 도반이던 금강산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을 비롯해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불교TV 회장),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서의현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직지사 前 주지 법등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종단 원로 및 중진 스님들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선 前 강원도지사, 김진태 前 검찰총장 등 정관계 인사 및 이근배 오세영 신달자 홍성란 시인 등 평소 무산 스님과 친분 깊던 문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용대리 마을 주민과 신흥사 신도 등 평소 무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500여 사부대중이 다례재에 참석해 추모했다.

이날 다례재는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의 무산 대종사 행장 소개와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의 추도사 순으로 시작됐다. 성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여기 모인 인연 있는 대중들은 모두들 마음 한자락 잃어버린 듯 합니다. 무산 스님 그 아픈 마음 언제 거두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쌓인 마음을 다음 생에 만나서 회향 하셔야지요"라고 추모했다.

이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도 진제 조계종 종정 스님의 법어 대독을 통해 "소식이 다할 때 기쁨이 다함이거늘, 마땅히 사람들이 어떻게 탁한 가운데 맑음을 가릴꼬. 구름이 없으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오직 밝은 달은 물결 위에 있음이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문도대표 인사말을 통해 "조실 스님께서는 설악산문의 큰 어른으로서, 또 종단 원로로서 평생을 사사봉공의 승가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며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을 재건하고 다시 크게 선풍을 일으킨 법력은 오래도록 후학과 사부대중의 마음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송 스님은 "문도들과 신흥사는 앞으로도 조실 스님이 생전에 보여주신 운수가풍과 사해중생에 대한 자비호념의 가르침을 이어가며 산문의 번영과 영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속초 설악산 신흥사는 5월 16일 설법전서 신흥사 조실을 지낸 설악 무산 대종사 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서 평생 도반 정휴 스님이 행장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마지막 무애도인'으로 회자된 前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설악산 일대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외에도 추모행사가 후에는 문도회가 중심이 돼 공적비와 기념관 건립 등의 무산 스님 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속초 신흥사=김주일 기자

"기부 · 건강 챙김 함께" 걷기명상대회 열린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6월 1일 여의도공원 일대서



2018년 5000여 시민과 불자들이 한강에서 진행한 걷기명상 대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걷기명상대회로 거듭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6월 1일 오전 10시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걷기명상대회 '명상, 한강을 걷다'를 개최한다.

2회를 맞는 이번 걷기명상 대회는 한강변을 따라 약 3.7km를 걷는 대회다. 워커온 앱을 통해 걸음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1원 적립 기부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지도자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소장품을 판매,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행사도 열린다.

모연된 기금은 서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산모 영양제 지원과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후원에 사용된다.

이번 걷기명상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중간에 한강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는 시간도 제공된다. 걷기에 치중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직위원장 선업 스님은 "걷기명상은 걷는 발동작과 느낌을 알아차림으로써 깨어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명상법"이라며 "정적인 좌선보다 호흡을 관찰하기 쉬워 초심자들에게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명상지도자협회 등록 단체의 다양한 명상체험 부스도 운영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명상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시민들을 안내하고 지도하여 단순한 걷기 운동에서 더 나아가 명상을 융합한 시민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보물' 승격

문화재청 지정 공고… "18세기 대표 다포식 건물"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천은사의 주불전으로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하면서 세워졌다.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옆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부에 높게 세운 기둥인 고주(高柱)의 윗부분에서 대량(大樑)과 툇보를 일체화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앞면과 옆면의 공포는 풀과 꽃, 봉황머리를 조각해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뒷면은 장식을 두지 않고 간략히 처리했다.

문화재청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 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될 역사 · 건축 ·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은사 극락보전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사찰과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귀의삼보 하옵고, 기해년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피 원력이 불자님 가정에 두루 충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찍이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는 미래세상에 지구촌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체 고통을 해탈하고 무진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소백산 구봉팔문 아래임을 증명하여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셨습니다. 본 대한불교천태종 송덕사에서는 서양사람들의 발걸음이 구인사에 끝없이 이어지길 염원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 중 미합중국 장병 전사자들을 위하여 33인등을 한등씩 달아 그 자손까지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합중국 장병 전사자들을 위한 33인등 한등 달기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희동참바랍니다.

● 관음경(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대회 : 6월 13일 ~ 14일 (참가신청 : 6월 7일까지 / 장소 : 송덕사 법당)
●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천도법회 및 위령천도재 : 6월 15일

● 장소 :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덕사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 영가) 33인등 1등 봉헌금 1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영산재 신도님 선대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으로,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는 등입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 덕 사

신촌대학 불자학생 토크 "꿈 찾아요"

5월 21일 문화공간 숨도서 3차 신촌지역 연합법회

연대, 이대, 서강대 불교동아리서 서명원 신부 초청 연합행사 개최 20여 학생 모여 불교와 인생상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합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명원 신부에게 인생의 가치에 대해 묻고 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행복보다 주변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 크면 주변의 기대에 맞춰야 할까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도 부모님의 큰 기대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만났고, 한국에 오게 됐죠. 40여년이 흘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기독교계 명문대학 내 불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법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서울 신촌 지역에 위치한 주요 3개 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불교학생회는 최근 매달 연합법회를 열고 있다. 5월 21일 서울 신촌에 위치한 문화공간 '숨도'에서 열린 3차 연합법회에는 20여 명의 이들 학교 학생들이 모여 함께 불교를 논했다.

연세대 불교학생회가 주최한 3차 연합법회는 이들과 비슷하게 가톨릭 신부로 불교학을 전공한 서명원 신부(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뤄졌으며 서명원 신부의 경험 중심의 1부와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독교계 학교에서 불교동아리를 하는 만큼 이들의 불교에 대한 생각은 진지했다. 박동성 학생은 "다양한 종교에서 성과 속을 얘기한다. 불교에서는 깨달음, 열반, 해탈을 얘기하고 이를 위해 정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질문했다.

서명원 신부는 "모든 종교나 철학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불교는 생사해탈, 기독교는 신과의 합일을 통한 영생이다. 현실은 사바세계지만 이러한 경지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이다"라며 "성과 속은 사실 구분이 없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성스러운 것들이 많다. 그런 성속 구분을 여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외에도 '사후세계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등 질문을 쏟아내며 높은 열의를 보였다. 특히 진로와 연관해 서명원 신부의 삶에서도 해답을 찾고자 했다.

정진실 학생은 "가족분들이 신부님의 의사생활로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지 않았나"고 질문했고, 서 신부는 "자신의 길을 걸어야지, 부모의 기대, 혹은 주변의 시선으로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서명원 신부는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겸손'이라고 하심을 강조했다. 서 신부는 "20대 때만 하더라도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만이었다. 돌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돌을 캐는데 돌은 캐도 캐도 나온다"며 "결국 불교수행은 겸손의 길이다. 달라이라마는 늘 배우려고 한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게 40년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회에 이어 신촌지역 3개 대학 불교동아리들은 앞으로 매달 1회씩 특색있는 정기법회를 여는 등 다양한 연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공간 숨도 측도 법회 장소 제공 등 청년 불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윤자명 연세대 불교학생회 회장은 "가까운 대학 불자 학생들이 자주 만나면 무엇을 해보고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앞으로 점차 새로운 것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전 요약 학습서 '제경행상' 발굴

학습을 위해 경전의 중요 내용을 기록했던 학습서가 발굴됐다.

불교사회연구소 법응 스님은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했던 무불 남성관 스님이 필사한 〈제경행상〉상, 하권(사진)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제경행상〉필사본은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이 경전의 중요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학습서로 승가교육의 전통에서 생겨난 중요한 자료이다. 전통 강원에서는 이력과목을 학습하면서 주석서를 남긴 것이 전해오는데 이를 '사기(私記)'라고 하며, 〈제경행상〉도 사기의 일종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제경행상〉으로는 통도사 강원에서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것을 1964년 유인본(油印本)으로 펴낸 것이 있다.

법응 스님은 "〈제경행상〉 전 권을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기증해서 향후 전문적으로 연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금융인 자비 행보 중심으로 발돋움

금융감독원 불자회 5월 15일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금감원 불자회 회원들이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질서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불자들이 불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발한 신행활동을 새롭게 서원했다.

금감원 불자회는 5월 15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법당 다보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박진해 금융감독원 불자회장(보험리스크제도실장) 등을 비롯한 20여 금감원 불자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법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이두형 중앙신도회 부회장, 조기열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장, 이동빈 수협은행불자회 행장, 정광호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위원장 등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을 발원문을 통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불자들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힘든 미묘하고 아름다운 인연에 한량없는 감사를 올린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자들에게 달라"고 발원했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불자회장은 "금융기관 불자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교의 수승함을 널리 알리는 전법사가 되어가자"고 당부했다.

정광호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장은 "금감원 불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정신을 소중히 여겼기에 오늘 20주년 자리가 있었다. 금융인불자들이 서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진해 지속적으로 불자회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불자회는 총 회원 50명으로 매주 화요일 금감원 내 법당에서 법회를 열고 있다. 첫 주는 묘각 법사를 지도법사로 법회를 열고 둘째주에는 108배, 셋째주에는 금강경 사경, 넷째주에는 참선을 하는 등 다양한 수행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참선지도자협회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 5월 18일 강의

"이고득락 요익중생이 곧 佛法"

서광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본래 강의주제가 한국불교와 간화선이었지만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유식(唯識)사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핏 들어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유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유식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장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닦고 수련하는 것, 즉 눈멀게 닦고 수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유식을 모르고 좌선하는 것이 그렇다." 강원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능엄경〉에도 미륵보살이 유식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식관을 닦아 보살도를 성취했다고 말이죠. 명나라 고승이었던 감산대사는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으로 정리된다고도 했죠.

집착에서 비롯되는 심리장애 자각하면서 멀어질 수 있어 유식수행으로 고통 벗어나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유식이 뭔지는 몰라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유식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유식은 인도의 세친보살이 쓴 〈유식삼십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불교의 핵심가르침을 30개의 게송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유식사상은 1대 미륵보살이 〈유가사지론〉을 저술하고, 2대 무착보살, 3대 세친보살로 이어지면서 정립됐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불교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핵심가르침은 바로 이고득락(離苦得樂) 요익중생(饒益衆生)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체득하고, 그 다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뒤 모든 이에게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목표가 없다면 애초에 수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담아낸 것이 〈유식삼십송〉입니다.

그래서 〈유식삼십송〉은 앞서 말씀드린 이고득락 요익중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번뇌장인데요. 요즘말로 표현하면 정서장애에 해당합니다. 정서가 오락가락하고 어지러울 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지장으로 인지장애입니다.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식에서 정서장애는 스스로에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휴식하지 못해 해탈열반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인식장애는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너와 남을 둘러싼 환경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유식삼십송〉은 1송에서 25송까지 어떤 구조로 심리가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26송부터는 우리가 경험하는 앎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전부 식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걸 알아보는 데까지 5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단계가 자량위(資糧位)입니다. 이후로 가행위(加行位), 견도위(見道位), 수습위(修習位), 구경위(究竟位)가 있지만 첫 단계만 온전하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셨으면 합니다.

자량위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사념처 수행이 필요합니다. 신수심법을 자각하면서 나를 이롭게 합니다. 그 다음은 타자를 이롭게 하는 사섭법입니다.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同事)죠. 이는 점차 사무량심으로 이어지고 육바라밀 수행으로 거듭납니다.

어느 순간 괴롭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갖는 느낌과 생각,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각하고 내려놓으면서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정리=윤호섭 기자

www.smilebangsu.co.kr NAVER 스마일방수 검색

원각사 정대스님이 적극 추천

지긋지긋한 방수공사
완벽시공





주택/아파트/빌라/공장 등 건물바닥/벽체 방수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자부심

스마일방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23번지

- 비 새는 곳 100% 방수 시공 전문
- APT, 주택, 거실, 방, 베란다, 천정, 크랙, 누수 전문 방수 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및 실내 에폭시 방수 전문
- 폴리 그라우팅(인잭션 방수)

시공 문의 051)754-0469 · 010-8534-9197

부산일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제 22403호 19

현장서 쌓은 방수 시공 기술력 '국내1인자' 자부


스마일방수의 오상순 사장은 "하자보수의 핵심은 신용과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 스마일방수는 20년간 방수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한 분야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이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시공 노하우가 경쟁력인 셈이다.

스마일방수 오상순(60) 사장은 "20년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웬만하면 누수 지점이 어딘지 감이 온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면 누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스마일방수를 창업한 오사장은 창업 전에 대우건설 A/S팀 등에서 일하며, 현장의 기술력을 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아파트 누수를 잡는 방수 기술이었다고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오사장은 "수요는 무한한데, 이때만 해도 방수분야에 정통한 기술자가 없었다. 나만의 기술을 시장에 보여주고 평가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바빠졌지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오사장은 자평하고 있다. 실수 없는 방수작업 뒤 의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 크다고 한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방수 분야 기술 하나만은 '국내 제1인자'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마일방수 고객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 사장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완벽한 시공을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전문 시공만을 고집하며, 한 분야를 파고들어 노하우를 쌓은 것도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첨가약제와 자재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방수시공이 실패할 때는 비용을 안 받거나 전액 환불해준다.

스마일방수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공 때에는 폴리그라우팅인젝션 기법과 'WS4000 1액형' 지수발포약제를 사용한다. 벽체와 천장 균열보수 및 외벽 방수는 그라우팅기법, 옥상 방수는 우레탄시공(도포), 실내주차장과 공장 바닥은 에폭시 기법으로 시공한다.

또 통상 평당 10만 원짜리 옥상 우레탄 시공엔 하도·중도·상도의 도포를 하지만, 스마일방수는 반드시 4차례의 도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도포 작업엔 햇빛 방지용 탑코팅제를 반드시 발라줘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사장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며 "신용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사)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19일 동국대 만해광장 및 남산공원 북측순환로에서 '제12회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들이 대회 시작을 알리는 모습.



굳은 날씨에도 3000명의 참가자들은 생명나눔을 서원하며 4km 코스를 걸었다.



수도군단작전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모습.



주최 측이 대회에 앞서 준비운동을 시연하고 있다.

'생명나눔' 서원하며 雨中 남산을 걷다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③ 제12회 희망걷기대회 현장을 가다

"지금부터 제12회 희망걷기대회를 시작합니다!"

징소리와 함께 대회 시작을 알리는 구호가 마무리되자 동국대 만해광장서 사부대중이 일제히 남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제법 굵었지만 친구, 가족들과 함께한 참가자들은 즐거운 표정이었다. 3천여 대중이 굳은 날씨에도 생명나눔을 서원하며 남산 일원을 걸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19일 동국대 만해광장 및 남산공원 북측순환로에서 '제12회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희망걷기대회는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걷기명상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이사 명신 · 선일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 등 내외빈과 개인 및 단체 · 유관기관 · 학생 ·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생명사랑, 생명나눔 세상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열린 올해 희망걷기대회는 대회 참가 기부금을 백혈병이나 난치병 등 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지원해 의미를 더했다. 이는 단순히 걷기대회로만 그치지 않고 환자들을 돕는 나눔 행사와 결합해 기부문화로도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사 명신 스님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08년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산 숲길을 따라 걷는 희망걷기대회가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면서 "고귀한 생명나눔의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 모인 참가대중들이 서로 배려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걷기를 바란다. 아울러 희망걷기대회가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나누는 자리로 발전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동국대-남산 일원서 개최
굳은 날씨에도 3천여 대중 참여
태권도 시연 등 문화공연도 다채
생명존중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걷기코스는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북측순환로를 걷는 4Km 구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각 구간별로 묵언의 길, 온기나눔의 길, 포옹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우천으로 참가 대중은 비옷을 착용하거나 우산을 들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옷과 신발은 젖었어도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남산 숲길의 정취를 느꼈다.

걷기대회에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주행사장인 만해광장에는 페이스페인팅, 핸드마사지, 네일아트, 꽃압화 체험, 보석십자수 만들기 체험, 북 두드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부스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생명'을 주제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장기기증 OX 퀴즈, 자살예방 스피드 퀴즈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의 걷기 이후에는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만해광장 메인 무대에서는 수도군단작전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태권도 시범을 시작으로 마하무용단의 법고 공연, 여의도 여고 응원단의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청소기, 노트북,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추첨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노재성(18, 광동고 3) 씨는 "이번에 처음 참석했다. 비가 왔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걷다보니 즐거웠다"면서 "걸으면서 생명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참여한 장일형(43, 광동중 교사) · 최승호(31, 광동중 교사) 씨는 "희망걷기대회에는 매년 참가하고 있다"면서 "생명나눔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는 행사여서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회는) 좋은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양혜원(46, 서울 서대문구) 씨는 "우연한 기회로 대회를 알게 돼 참여하게 됐다"면서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라 뜻 깊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우중(雨中)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자녀인 서우진(11) 군도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걸어서 즐거웠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 대해 이사장 일면 스님은 "희망걷기대회는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는 생명존중 문화 나눔의 축제"라며 "희망걷기대회에서 우리가 함께 내딛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지친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갈 것이다. 앞으로도 대회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6월

제25회 생명나눔천도재 및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6월 6일(목)
- 장소: 남양주 불암사

육군훈련소 군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교육
- 날짜: 6월 23일(일)
- 장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동국대일산병원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장소: 동국대일산병원 1층 로비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상시운영(금요일 제외)
- 장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

부산지역본부 장기 · 조직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매주 월~금(상시)
- 장소: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불교문화해설사 양성 '박차'

대불청 부산지구, 5월 15일 만해아카데미 개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작됐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유진상)는 5월 15일 부산불교실업인회 건물 3층 영광문화예술원에서 '만해아카데미 개원 및 불교문화해설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만해아카데미 첫 강좌는 '불교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다. 이 과정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서울과 부산, 제주 등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일정은 이론 7회, 현장 답사 5회로 진행된다. 강사는 류상영 초대원장과 박상언 부원장이 담당하며 기초과정 수료 후에는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증 3급이 주어진다. 이후 고급 심화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류상영 원장은 "만해 스님은 불교로 민족 각성과 조선 독립운동에 나섰다"며 "만해 스님의 뜻을 잇는 청년회가 새롭게 문을 연 만해아카데미가 포교 새바람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상 회장은 "만해아카데미가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 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문화와 사회를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할 강좌, 특히 스마트폰의 불교적 활용법, 명상 등 불교 관련 사회접목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검단선사 정신, 행복바라미와 같아"

고창 선운사,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축제 열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제가 5월 18일 조계종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렸다.<사진> 선운사 경내 곳곳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연꽃등 만들기, 소원지 쓰기, 다도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돼 나들이 나온 가족과 탐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개막식에서 선운사 부주지 대선 스님은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줘 생계를 해결하게 했던 검단선사의 선운사 창건 정신이 행복바라미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행복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사회가 통합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은 박종길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국 20개 교구신도회와 함께 나눔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마음을 통해 행복바라미의 참뜻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어서와 도솔천은 두 번째지?'를 진행했다. 군산 상주사 난타팀의 식전공연과 다도시연, 국악공연, 이창선 밴드와 가수 김용진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남구불교聯,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 5월 14일 시상식

부산남구불교연합회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19 이웃돕기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남구불교연합회는 매년 이웃돕기를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진행하며 자비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5월 14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희망2019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남구불교연합회 사무총장 호명 스님은 "매년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연합회에서 주관해 펼쳐왔지만 상을 받은 건 격려의 의미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합해 지역민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펼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몽골에 심은 '지구사랑 희망나무'

홍법사, 8000평 '홍법사 동산'에 3290그루 심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몽골 중부 지역 우브르항가이에 미래 환경을 위한 희망나무 3290그루가 심겼다. 10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교류를 이어 온 홍법사에 우브르항가이 지역이 8000여 평의 땅을 제공한 것으로, '홍법사 동산'을 기부 받아 진행된 미래 희망 사업이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5월 19일 몽골 우브르항가이 홍법사 동산에서 희망 나무 심기를 진행했다. 미래 10년 동안 푸른 숲이 있는 몽골 도시로 가꾸기 위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시작됐다.

희망나무 3290그루는 한국과 홍법사 그리고 몽골 우브르항가이 지역민이 미래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원력이 담겼다. 3000그루의 포플러 나무와 70그루의 현지 야생 소나무는 홍법사가 구입했으며, 한국 산림청은 20그루의 포플러 나무와 200그루의 소나무를 기부했다.

심산 스님은 "물을 저장고에 저장해 뒀다가 실외 온도와 비슷해졌을 때 물을 주는 등 나무가 잘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푸른 숲 가꾸기가 몽골과 한국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법사는 10년 전부터 의료봉사와 교육, 문화 활동으로 몽골을 후원해 왔다. 의료 지원뿐 아니라 농아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교내를 청소를 하는 등 나눔 활동도 펼쳤다. 헌옷 보내기 사업일환으로 매년 몽골에 옷을 보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장학생을 선발해 교육 지원도 이어왔다. 홍법사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몽골서 포터즈로 몽골과 인연을 맺어 몽골국가

희망나무 3290 그루 심어
푸른 숲 가꾸기 10년 계획
후손 위한 국제 협력 의미
"고비사막 확장 전에 심어야"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외국인 사상 처음으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홍법사 동산 8000여 평은 지속적 봉사와 나눔으로 이뤄낸 결과다.

심산 스님은 "고비 사막이 확장될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동안 이어온 교육, 문화, 의료 활동으로 쌓은 신뢰가 만들어낸 의미 깊은 사업이다. 몽골이 푸르게 되는 건 우리 한반도도 함께 푸르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자리이타"라고 설명했다.


부산 홍법사가 몽골 중부 우브르항가이 지역 8000여 평의 땅에 나무 3290그루를 심었다.

강볼트 우브르항가이 도지사는 "홍법사의 활동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법사는 호국의 달을 맞아 6월 6일 '홍법바라밀재 및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먼저 '호국의 숨결을 느끼다' 편에서 제29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호국선열 추모대재)를 오전 10시 봉행한다. 개회식인 '호국의 숨결을 보다'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연주 및 의장대 사열 시범 등이 진행된다. 이날 내빈 및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호국영령을 기린다. 개회식은 낮 12시에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진행된다. 이어 전국 유치원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을 고취하는 제9회 호국의 숨결 대회(청소년 호국 문화예술 전국대회)도 펼쳐진다. '호국의 숨결을 즐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되며 그리기 부문, 글짓기 부문, 서예 부문으로 나눠 참가가능하다. 행사 당일 도화지, 원고지, 화선지는 주최 측에서 배부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hannarae.org)서 가능하며 우편과 현장 접수도 받는다. 온라인 접수 마감은 6월 2일이다.

英 앤드루왕자 천년고찰 봉정사 참배

"봉정사의 환대에 감사 왕실 가족 방문 추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20년 전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봉정사를 다시 찾았다.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ALC)'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앤드루 왕자는 5월 14일 태극기와 영국국기 유니언 잭을 든 불자들과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 주지 도륜 스님의 환영 속에 봉정사에 도착했다.

20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아 방문했던 봉정사의 정취를 느끼고자 온 앤드루 왕자는 대웅전과 석조여래좌상, 극락전을 둘러보고 범종각에서 호성 스님과 함께 범종을 타종했다.

호성 스님과 앤드루 왕자는 영국과 영국 왕실의 번영, 한국과 안동 봉정사의 번영, 한국의 평화와 인류의 공영,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봉정사에 방문한 앤드루 왕자가 평화를 기원하는 돌탑을 쌓는 모습.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극락전에 들어간 앤드루 왕자는 불교 의식에 쓰이는 목탁과 종의 용도를 묻고 800년을 온전히 견딘 극락전 기둥을 만지며 감탄했다.

앤드루 왕자는 극락전 앞 석탑 앞에 돌탑도 쌓았다. 도륜 스님은 이 땅의 평화와 자비광명을 기원하는 돌이라고 설명하자 앤드루 왕자는 "영광스런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봉정사에서는 근일 스님이 '대영제국'을 첫 글자로 지은 4행시 '대한민국봉정사, 영국왕실요크공, 제불보살 가피력, 국운융성세계화' 족자를 선물로 전달했다. 앤드루 왕자는 '옛 모습을 간직한 산사에서 한국인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고 간다'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앤드루 왕자는 만세루를 나서며 봉정사에서의 추억을 여왕에게 전하겠다는 뜻과 왕실 가족의 방문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2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다녀간 하회마을,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봉정사에 이르는 32㎞의 길을 기존 '퀸스로드(Queen's Road)'에서 영국 왕실의 사람들이 잇따라 걸은 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로얄웨이(The Royal Way)'로 새로 명명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大韓佛教 淨土禪宗 총무원 서방사

관정(寬淨)대사
12주기 다례재



관정스님은 1924년 7월 7일에 중국 복건성 포전현에서 태어나 7살 때 복건성 교충사(敎忠寺)에 출가하여 17살 때 광동성의 남화사(南華寺)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강서성(江西城) 운거산에서 허운 화상으로부터 동운종 제48대 전법 제자로 부촉 받았다. 1980년 복건성 선유현 삼회사(三會寺)의 주지로 있을 때 12월 23일 선정에 들어 29일에 출정 6일반 동안 선유현에 진동이 일어났으며 귀의한 제자만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1967년 구선산 맥사암사 뒤 미륵 동굴에서 선정에 들어있을 시 관세음보살 인도로 극락세계 9품 연화의 경계를 참관하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6년 5개월이 지난 1974년 음력 4월 8일이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널리 펴라고 부촉하신 선정쌍수(禪停雙修) 수행법인 정토선(淨土禪) 염불 수행법을 전해주시고 2007년 음력 6월 19일 0시에 열반에 드니 세수 84세, 법랍 68세다.

허운(虛雲)화상
사리탑 점안식



허운화상은 1840년 중국 복건성 천주부에서 태어나서 1858년(19세) 복주(福州)의 고산 용천사로 출가하여 다음 해 묘련 화상을 스승으로 구족계를 받았다. 44세 때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56세 때 양주 고민사(高旻寺)에서 12주간의 타칠(打七)기간중 8주 3일째, 뜨거운 물이 손에 튀고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순간 의심의 뿌리를 모두 끊었다. 종문(宗門)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외세의 침략과 공산정권의 억압 하에서도 승도(僧徒)를 수호하고 사찰과 불당의 파괴를 막고, 수십 개소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戒)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던 스님은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1959년 길상와(吉祥臥) 자세로 입적하였다.

경남 고성군 제9회
보리수 축제

행사내용
1부 오전 10:00 | 다례재 및 점안식
2부 오후 12:00 | 제9회 보리수 축제

행사안내
일시 2019년 6월 2일 일요일
장소 고성군 상리면 고봉1길 432-39 서방사
문의 055-673-3719 또는 010-8633-3719
고성 보리수 축제 11시 30분부터 중식 제공

대오견성 용맹심으로 결제 임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若論此事(약론차사)일진댄 千聖靈機不易親(천성영기불이친)이라. 龍生龍子莫因循(용생용자막인순)하라. 眞際奪得蓮城壁(진제탈득연성벽)하니 秦主相如摠喪身(진주상여총상신)이로다.

이 일을 논할 진댄 일천성인의 신령한 기틀도 쉽게 친하지 못한지라. 용이 용새끼를 낳아서 따른다고 이르지 말라. 진제가 연성의 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여가 다 생명을 잃음이로다.

금일(今日)은 기해년 하안거 결제일이라. 여름과 겨울에 사부대중이 모여서 결제하는 수행전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훌륭한 전통이다.

그러면 대중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행(修行)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천이백 대중을 모아놓고 물으시기를 "대중이 얼마나 공부를 시켜 주느냐?"하니, 아난 존자(阿難尊者)가 일어나서 말씀드렸다.

"대중이 반을 시켜줍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네가 잘 알지 못했다. 대중이 전체를 시켜주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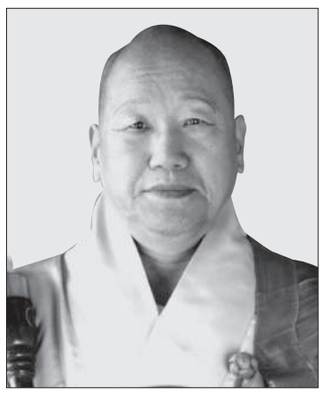
대중의 힘이라는 것은 무섭다. 게으름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대중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용맹(勇猛)과 신심(信心)을 내어 애쓰고 애쓰는 이나, 화두일념삼매(話頭一念三昧)에 들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참구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이들을 보고 각자가 자신을 반성하여, 다시 신심(信心)을 내고 발심(發心)을 해서 공부를 다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대중이 공부를 전체 다 시켜 준다고 하셨던 것이다.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은 다시금 결제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금번 결제에는 반드시 대오견성하겠다는 용맹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제에 임해야 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라. 그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여 보는 것도 잊고 듣는 것도 잊고 일념삼매(一念三昧)에 푹 빠져 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됨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산(雪山)에서 6년의 용맹정진 끝에 일념삼매에 들어 납월 팔일 새벽 별을



보고 대오견성(大悟見性)하셨음이라. 그 후에 대중들에게 49년간 가지가지의 방편법문을 하셨다.

대중에게 세 번 특별한 법문을 하신 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한다. 한 번은 인천(人天) 백만 대중이 법문을 듣기 위해 좌정(坐定)하고 있을 때, 제석천왕(帝釋天王)이 부처님께 우담바라 꽃을 올리니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아서 아무 말 없이 대중에게 보이시니 오직 가섭 존자(迦葉尊者)만이 빙그레 웃으셨다.

또 한 번은, 법회일에 모든 대중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 운집(雲集)해 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섭 존자(迦葉尊者)가 들어오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기 위해서 법상에 좌정해 계시다가 자리의 반을 비켜 앉으셨다.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그 뜻을 알고는 선뜻 그 자리에 가서 앉으니, 부처님께서 가사를 같이 두르시고 대중에게 말없이 보이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일주일 후에, 교화(敎化)를 위해 수백 리 밖의 타방(他方)에 가 있던 가섭 존자가 돌아와 부처님의 시신을 향하여 위요삼잡(圍繞三匝)하고 합장 예배를 올리며, "삼계(三界)의 대도사(大導師), 사생(四生)의 자부시여! 우리에게 항상 법문하시기를, '생노병사(生老病死)가 원래 없다' 하시더니 이렇게 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하니, 칠 푼 두께의 금관 속에서 두 발이 쑥 나왔다.

그래서 가섭 존자가 다시 합장 예배를 올리니, 두 발은 관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관이 그대로 중천(中天)에 떠올랐는데 이 때, 지혜삼매(智慧三昧)의 불이 일어나 허공중에서 화장(火葬)되어 팔곡사두의 사리가 나왔다.

이렇듯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가섭 존자만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알았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있는데 마하 가섭에게 전해 주노라"하시어 가섭 존자에게 견성심인법(見性心印法)을 인가(認可)하여 전하셨다. 이 삼처전심의 법문을 알아야만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아는 것이고, 만 중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눈을 멀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략〉**

마음 따라 일체만법 생멸한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모름지기 수행자란 마음 닦는 일 이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서 삼삼조사(卅三祖師)나 천하종사(天下宗師)가 다 구경각(究竟覺)을 깨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납자들이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從何而修)"라고 하니, "근본부터 닦아야 하느니라(從根本修)"했습니다. 그러자 납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云何從根本修)"라고 하자, "마음이 근본이니라(心爲根本)"라고 일갈했습니다.

〈능가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生)하면 일체만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滅)하면 일체만법이 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정토(淨土)를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나니,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총림에서 정진하는 납자나 자기 사찰에서 정토 염불 기도하는 종도나, 다 마음 찾는 공부는 똑같습니다. 이번 한철에는 태고종문의 태고법손들은 흑백(黑白)으로 나눠서 분별시비(分別是非)하지 말고 원융화해(圓融和解) 큰마음으로 구종(求宗)의 정법당간(正法幢竿)을 높이 들어서 부종수교(扶宗樹敎)의 본분을 다하는 진정한 승가(僧伽)의 일원(一員)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간만사는 모두 환몽이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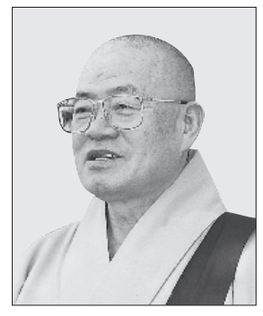
망념과 모든 반연 끊어 제하니 천진한 면목이 마땅히 드러나는지라. 불 속에 핀 연꽃이 향기가 천지에 떨치니 항하의 모래수 중생이 다 깨닫는도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개개인이 본래 갖추어 있는 새지 없는 참된 성품을 도리어 가히 알았는가? 만약 조사의 관문을 투득했거든 아무렇게나 한마디 일러보라!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하고 이르시되 눈 속에 바야흐로 송죽의 절개를 아는지라 알겠는가? 깊은 밤 삼경에 대문에 들어가니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도다.

모든 사람은 바야흐로 조종문하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행하는고? 지극히 명리를 구하는가? 지극히 영화를 구하는가? 지극히 안일을 구하는가? 지극히 지식을 구하는가?

다 아닌지라. 세간만사는 모두 이 환몽이니 한 칼로 두 끝내어 다만 본 성품만 구할지니 쉬고 쉬어라. 옛 조사가 이르시되 심성은 물듦이 없어 본래 스스로 원성이라 하니 법답게 수행해서 본성을 깨달으면 길이 생사를 면해서 만법에 왕노릇 하리니 머리에 불 끔과 같이해서 잠깐도 쉬지 말지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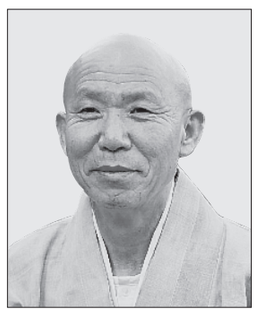
시방법계의 모든 납자가 모두 조사의



공안 상에 있도다. 부처님과 조사가 체득한 당처를 알아 얻기만 하면 곧 장부의 능히 할 일을 마치리라. 정신차려 살피라!

향상일로는 각자의 몫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별봉조진(別峰祖珍)선사가 법석사(法石寺)에서 결제하는 날 법좌에 올랐습니다.

"향상일로(向上一路)는 천성부전(千聖不傳)이라. 향상의 외길은 모든 성인들도 전하지 못했다."

주장자를 높이 세우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밝혔으니 십만 팔천의 법상(法相)과 도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

결제대중이 아무런 답변이 없자 양구(良久)하더니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도홍이백장미자(桃紅李白薔薇紫)인데 문착동군자부지(問着東君自不知)로다.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며 장미꽃은 자주색임을 봄바람에게 물었더니 그도 알지 못하는구나."

야보도천(冶夫道川)선사는 금강경 시작부분인 "일시에 부처님께서 사위국기수급고독원에 계시니"라고 길게 읊고는 '일시(一時)' 부분에 대하여 당신의 송(頌)을 붙였습니다.

"시시(時時)여! 청풍명월(淸風明月)이 진상수(鎭相隨)라. 도홍이백장미자(桃紅李白薔薇紫)인데 문착동군자부지(問着東君自不知)로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항상 서로 따르고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며 장미꽃은 자줏빛으로 피는 것을 봄바람에게 물었더니 그도 모르더라."

'일시'란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시는 금강경을 설하던 당시의 일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어떤 곳이건 금강경이 설해지면 어느 때라도 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옛 일시와 지금의 일시는 같은 일시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달이 뜨고 꽃이 피는 것조차도 그 일시와 같은 일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고 장미꽃은 자줏빛으로 피었으며 또한 현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사들은 괜히 쓸데없는 말로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며 장미꽃은 자주색임을 봄바람에게 물었으나 그도 알지 못한다' 라는 시를 억지로 빌려와 '분별이 없는 가운데 삼라만상의 차별상 하나하나가 모든 진리를 드러낸다' 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반산보적(盤山寶積) 선사는 별봉조진 선사의 법문을 빌려와 시중(示衆)한 것입니다.

"향상일로(向上一路)는 일천 명의 성인도 전하지 못하거늘 배우려는 사람들은 공연히 헛수고를 하니 마치 원숭이가 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으리라."

향상을 위한 열쇠는 결국 내가 챙기는 화두입니다. 설사 바다가 일천성인의 입이라고 할지라도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쇠로 만든 배를 수미산 꼭대기로 끌고 가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결제 대중들은 여름 한철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인생문제, 생사문제가 해결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중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구상착래무교처(口上着來無咬處)인댄 방지천성불능전(方知千聖不能傳)이리라.

입술을 위로 붙이고 아무 것도 씹지 않는 곳이라면 바야흐로 일천 성인도 능히 전하지 못한 것을 알리라.

어설픈 지혜로 세상 변화 못 따라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하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염천(焰天)의 열기를 벗 삼아 우리 대중은 정진해야 됩니다. 늘 건강 살펴 무사히 안거 동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맡은 소임이 소임인지라 중언부언이지만 별 볼일 없는 늙은 비구가 법상에 올라와 몇 마디 할 수 밖에 없으니 사부대중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 산철동안 중국의 청담가(淸淡家)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고담준론(高談峻論)을 나누며 오석산(五石散)을 먹는 그런 부류들인데 맑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상한 척하지만 실질(實質)이 없어 쉼 없이 생기는 상황들에는 손발 둘 곳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이나 참담하며 두려워졌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행을 핑계 삼아 저런 청담가들의 공리담론(空理談論)과 같은 행을 했던 것은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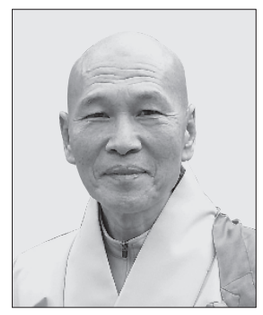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고요함에 집착함을 경계하셨고 조사스님들께서도 성성(惺惺)과 적적(寂寂)을 말씀하셨지 고요한 경계(寂寂)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성(惺惺)함이 없는 적적(寂寂)은 외도이지 우리 불교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이 없이 고요한 경계에 집착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외도요, 잘 쳐줘봐야 청담부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청담(淸淡)으로는 생사의 깊은 수렁에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이야기 따위로 어찌 마하반야에 계합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절집안의 많은 이들이 청담가(淸淡家)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事적인 측면만을 보아 理 입장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편중된 것이 아닌가 오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理事가 본디 둘이 아니기에 원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 인연으로 가끔 세속에 나가 일을 보게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실용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활동을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 절집은 갈수록 현상적인 부분을 놓쳐서 쓸만한 인재가 드물게 생각이 듭니다. 뼈아픈 얘기지만 허황된 생각들에 경도되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식광(識狂)을 깨달음으로 착각해 자신이 불조(佛祖)나 된 듯 함부로 말해대는 청담말류(淸淡末流)들만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발전된 세상에 농경시대 때나 통용되던 관념으로 어찌 신시대의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현칙 스님이 법안문익 스님 회하에서 감원소임을 살 때 법안 스님께 한 번도 법문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칙 스님 자신은 청림화상 문하에서 한 소식을 했다고 믿고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법안 스님께서 현칙에게 뭘 깨쳤냐 물으시니 현칙 스님 답하기를 '丙丁童子來求火라!'

丙丁은 불을 이름함이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법안 스님께서는 그 말을 수긍치 않으셨고 현칙 스님은 짐을 싸서 법안 스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칙 스님은 다시 돌아가 다시 법안 스님께 법을 청했습니다. 청림화상 문하



에서 얻었던 작은 것에 집착을 했었다면 현칙 스님은 생사관(生事關)을 돌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칙 스님은 큰마음을 내어 다시 돌아왔고 무엇이 부처인가를 법안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丙丁童子 來求火라!' 법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칙 스님은 깨쳤습니다.

우리 사부대중들은 악지(惡知)와 악해(惡解)를 여의고 실참실오(實參實悟)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어설픈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바른 정진(正定進)으로 바른 견해(正見)를 얻어야만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하략〉**

그림자 없는 나무에 붉은 꽃 만발하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一株無影樹(일주무영수)를 移就火中栽(이취화중재)라. 不假三春雨(불가삼춘우)라도 紅花爛熳開(홍화란만개)로다.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 가운데 옮겨 심었네. 춘삼월의 비를 빌리지 않아도 붉은 꽃이 어지러이 피어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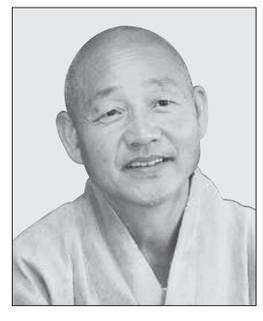
총림대중이 모여 결재용상방을 짜고 하안거 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재와 해재가 없이 늘 힘써 정진해야 하지만 스스로 느슨한 마음을 단속하고 가행정진을 다짐하는 날이 결재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대중이 산문출입을 삼가며 계율을 엄정히 지키고 정진에 힘쓰도록 안거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일체 賢人(현인)과 聖人(성인)이 증득한 법이 모두 無爲法(무위법)이나 그 일에 차별이 있으니 성문은 四諦(사체)를 수행하고, 연각은 十二因緣(십이인연)을 닦으며, 보살은 六波羅密(육파라밀)을 실천합니다.

총림의 수선납자는 오직 화두참구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 간절하게 대의심 · 대분심 · 대신심을 일으켜 바로 화두를 타파하고 여래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화두참구가 성성하게 되면 무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무아를 체득하면 다른 인연이 없어지며,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아져서 부처님과 조사의 신통묘용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그러하나 견해에는 천 가지로 차별이 있으며, 그 차이는 한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한 생각의 차이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天地(천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한 덩어리이니 금으로 천 개의 그릇을 만들면 그릇 그릇이 모두 금이며, 한 덩이의 전단을 쪼개면 만 조각의 전단이 모두 전단향입니다.



法相非法相(법상비법상)이여 開拳復成掌(개권복성장)이로다. 浮雲散碧空(부운산벽공)이니 萬里天一樣(만리천일양)이로다.

법상과 비법상이여! 주먹을 펴니 다시 손바닥이로다. 뜬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 하늘이 푸른 하늘이더라.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경세자·예종·고종 원력 남은 사찰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⑩ 두 임금의 원찰 수국사



옛 정인사의 역사를 이어받은 수국사에는 조선왕조 초기 억불숭유에도 지켜낸 불교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원찰을 금지한 조선

세종은 즉위 2년 7월 10일 어머니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산릉 옆에 절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를 상왕에게 묻자 11일 병조 참의 윤회를 세종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선에 이르러 개경사 연경사가 있어 대비의 능에도 사찰을 지을 수 있으나 나는 절을 짓지 않고 법석도 역시 개설하지 아니하여, 이로부터 법을 세우려 한다."

난감해진 세종은 윤회를 상왕에게 보내 불교의 폐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능소를 모신 후 빈 골짜기가 쓸쓸하기 때문에 절을 짓고 수행이 바른 수행자를 두면 위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아뢰기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태종의 뜻은 단호했다. 7월 17일 환관 홍득경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주상이 절을 산릉에 설치코자 하나, 그러나 불법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라, 나로 하여금 이 능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면 절을 짓는 것도 가하나, 만일 이 능에 내가 들어갈 터라면 절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태종 이전에 세워진 원찰이 있었다. 태조의 원찰 개경사이다. 이는 태조의 뜻이었기 때문에 태종이 막을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이 원찰을 세우지 않는 것은 법을 세워 이를 만세의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태종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손들에 의해 원찰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세종은 죽어 태종 곁에 묻혔다가 세조 때 지금 여주로 이장한 후 신륵사를 원찰로 삼았다. 세조 역시 광릉에 묻힌 후 옆에 있는 봉선사를 원찰로 삼았기 때문에 창건이라고 할 수 없다. 태종 이후 원찰을 창건한 이는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희왕후 윤씨였다.

의경세자의 원찰 정인사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큰 아들을 의경세자로 책봉했다. 그런데 세조 3년(1457) 9월 20세의 나이로 죽었다. 세간 사람들 사이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저주를 맞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왕후의 묘를 파내 시신과 관을 쪼개어 강물에 던졌다고 한다. 조카의 목숨은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식의 목숨을 안타깝게 여기는 세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다분히 후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조는 왕위찬탈의 인간적 번민을 불교에 의지하였으며, 도덕적 약점은 검소한 생활로 민심을 얻으려 하였다. 세자의 능을 조성할 때 국장도감의 관리들은 조금 사치스럽게 조성하려 하자 다음과 같은 어찰을 내렸다.

"이번 장례는 임금의 장례가 아닌데 모든 일이 정도에 지나친 것 같다. 그 무덤 안의 모든 일은 후하게 해도 되지만, 무덤 밖의 모든 일은 비록 나의 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박하게 해야 한다. 한갓 백성만 번거롭게 할 뿐이지 죽은 자에게는 유익할 것이 없다."

의경세자를 고양군 동쪽 봉현(蜂峴)에 장사지냈다. 지금 서오릉이다. 다음해 내수사에 일러 능 동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찰을 세웠다. 세조는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완성할 것을 명하였다.

"내 아들 의경이 불행하게 수명이 짧아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다. 초상 장사에 일이 거창하였으니, 거듭 국가를 번폐스럽게 하지 않고자 한다. 너의 내수사는 현실(玄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 한 구역을 만들어라. 혹시라도 폐단을 끼치지 말고 완성하게 하라."

판화엄대선사(判華嚴大禪師)인 설준(雪峻)의 지도하에 열두 달이 걸려 완성하니 바로 정인사(正因寺)이다.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 원찰
예종 원찰 '정인사'로 명명
1900년 고종 '수국사'도 중창

예종의 서거와 정인사 중창

세조가 죽은 다음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예종은 재위 1년 3개월 만에 죽었다. 의경세자 옆에 장사하니 능이 창릉이다. 정희왕후 윤씨는 종친들과 의논하여 의경세자의 둘째 자산군을 보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성종이다. 아들이 왕이 되자 죽은 의경세자는 1470년 1월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의경세자 원찰인 정인사가 맘에 들지 않았다. 창건할 때 서둘러서 지었기 때문에 재목이 좋지 못하고 이음새가 정밀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그래서 성종 2년(1471) 봄 자신이 살던 집에 새로운 원찰을 세우려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수사에 주고 판내시부(判內寺府) 이효지에게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두 아들의 어머니인 대왕대비 윤씨는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곳 가까이 원찰이 있었으면 생각하였다.

"의경대왕과 예종대왕 두 능의 현실(玄室)이 아주 가까워 한 절의 종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곳이다. 만약 인수대비가 개축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과 힘을 합쳐 재물을 모아 정인사를 중창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의경, 예종을 위해 천복(薦福)하는 정성도 이루어질 것이다."

정희왕후 윤씨의 뜻대로 정인사 중창불사는 1471년 2월에 시작하였다. 노역에 대한 삯을 지불하자 많은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나섰다. 흉년이 들어 빈궁했던 탓에 삽을 멘 자가 구름같이 모였다. 그 덕분에 10월에 모두 119칸의 정인사가 중창되었다. 부인과 어머니의 힘이 합쳐져 완성된 왕실의 원찰인 까닭에 사찰은 웅장하면서 아름다웠다. 단청이 휘황찬란하여 아름다움이 봉선사와 서로 첫째 둘째가 될 만하였다. 이런 정인사의 아름다움을 정인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원릉은 채색 구름 가에 엄숙하고, 사찰은 빼어난 메 앞에 높다랗다. 금벽 채색 빛나서 아침 햇볕이 쬐고, 달랑거리는 풍경 소리는 바람이 멀리 전한다. 불등(佛燈)은 넓게 삼천계(三千界)를 미치고 국운(國運)은 응당 억만 년에 뻗치리라. 정맹(精猛)한 두타(頭陁)는 법좌(法座)에 올라 묘법을 말하고, 진전(眞詮)을 부연한다."

두 임금의 원찰이 된 정인사는 자연히 왕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받았다. 인수대비는 '절은 있으나 곡식이 없으므로 승려가 의지할 곳이 없다' 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미곡 백 섬을 시주하여, 본곡(本穀)은 남겨 두고 이자만 이용하여서 식륜(食輪)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불구(佛具)도 모두 여유 있게 구비하여 다른 사찰의 부러움을 샀다.

성종 4년(1473) 4월 초파일에 낙성 법회를 크게 하고 대승의 여러 경을 인출하자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신묘한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하며 서기가 하늘에 뻗쳤다. 원근에 있던 승려 수만 명이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감탄하면서 절하였다.

정인사는 대소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외 잡역 및 노비 잡역을 감하였다. 사원전이 몰수될 때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종은 호조에 명하여 정인사는 다른 절에 비할 바가 아니니, 봉선사의 예에 따라 쌀과 포를 주라고 명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인사의 수난

왕실의 관심으로 불교배척은 면할 수 있었던 정인사도 화마만큼은 피해가지 못했다. 연산 10년(1504) 9월 정인사가 불에 타자 즉시 경기 감사 안윤덕과 형조 참판 박열을 불러 바로 가서 국문하도록 하였고, 두 임금의 영혼이 놀랐으므로 위안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화재로 정인사는 한 때 폐사될 운명에 놓이기도 하였다. 중종은 3년(1508) 경릉과 창릉의 원찰을 대자사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많아 다시 정인사를 복구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 옛 모습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4년(1549) 인근 유생들이 이곳에 드나들며 전해오는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자 왕실은 정인사가 왕실의 원찰임을 들어 봉선사와 봉은사와 같이 방을 걸어 유생들의 침입을 금했다. 그리고 소란을 크게 피운 황언징은 1차에 한하여 식년과거 참여를 정지시키는 등 왕실의 원찰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이후에도 정인사는 사찰 위전(寺刹位田)이 그대로 지급될 정도로 왕실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정인사에서 수국사로

정인사가 지금의 수국사로 바뀐 것은 언제일까? 안타깝게도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종 이후 이에 관련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수국사로 바뀌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종 즉위년(1863) 12월 대왕대비가 산릉을 살펴본 의견을 들을 때 도감의 책임자 임백경이 수국사의 뒷산이 길한 곳 여덟 곳에 포함된다고 아뢰는 것을 보면 그 이전 수국사로 바뀐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사격이 많이 훼손되고 부처님도 인근 진관사로 이운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폐사에 가까웠을 것 같다.

그런 수국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창한 것은 홍월초 스님이다. 진관사에 있는 수국사 부처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중흥의 원을 세웠다. 1900년(광무 4) 세자로 있던 순종의 병을 낫게 하자 고종은 그 고마움으로 현재의 위치인 갈현동 태화산 자락에 수국사를 중창하였다. 정인사에서 수국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창건과 마지막 중창까지 모두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재)명원문화재단 (사)한국다도총연합회 (사)홍차협회
2019 명원 세계 차 박람회
2019 MYUNG WON WORLD TEA EXPO K-TEA FESTIVAL | 2019 茗園世界茶博览会
세계의 茶, 내안에 茶, 우리의 茶
세계로 퍼진다
TEA

제24회 국제 차 문화대전
24th International Grand Tea Culture Award

월드 티아트 콘테스트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World Tea Art Contest Korea Tea Package Design Winner Exhibition

월드 티 심포지엄 제1회
대한민국 茶 인성교육대회
World Tea Symposium Korea Tea Humanistic Education Conference

2019.8.8 부터
8.11 까지
서울 코엑스(COEX) B홀

| 주 최 | (재)명원문화재단, (사)한국다도총연합회, (사)홍차협회 | 주 관 | 명원세계차박람회조직위원회

내 안의 붓다 만나는 길 '불교'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⑩ 산중방담 그룹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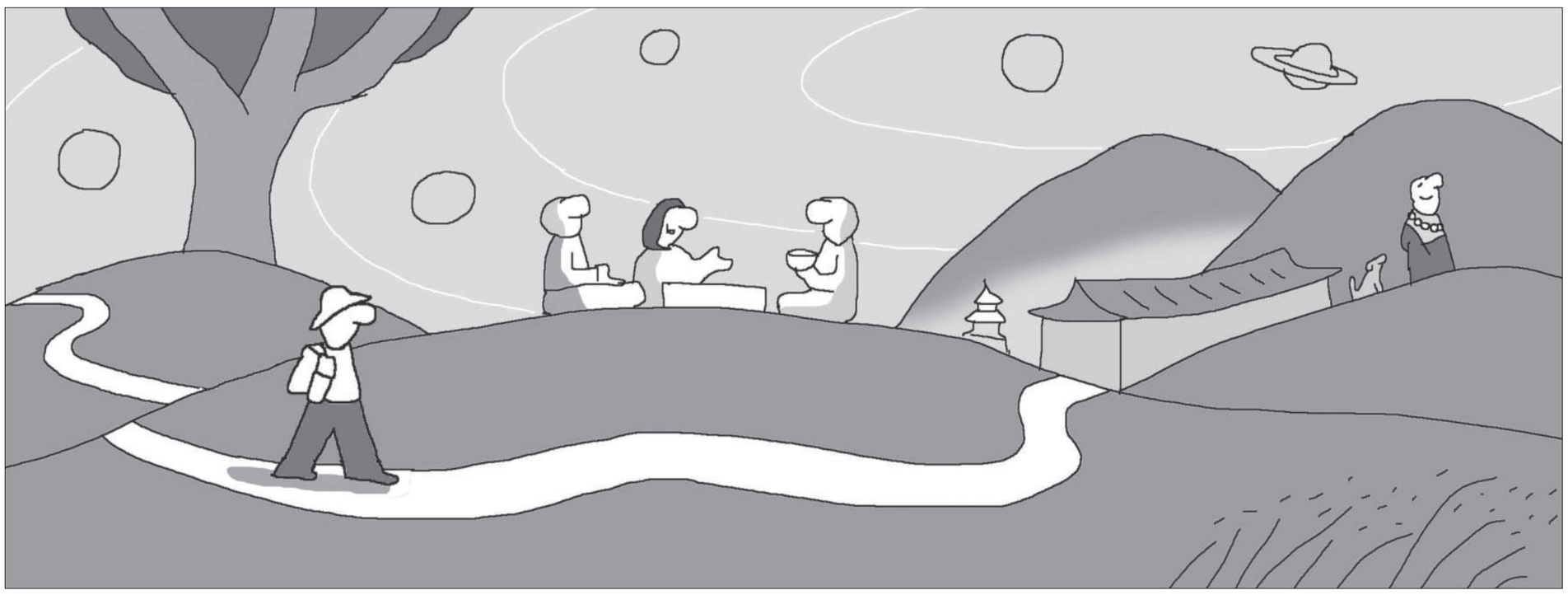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오신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한 5월의 산사에서 몇몇 불자들이 정담을 나누었다.

학생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불자모임을 이끌고 있는 신행생활 40년의 ㄱ씨.

아침마다 어머니 독경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늘 부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며 저절로 불자가 된 40대의 ㄴ씨.

마흔에 남편을 사별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며 3남1녀를 키운 어머니의 지극한 전법으로 지난해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한 ㄷ씨.

불교는 종교 이전에 철학이라며 불교 사상에 심취해 늘 질문을 달고 다니는 ㄹ씨.

한국사찰의 아름다움에 빠져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는 ㅁ씨.

이들은 신심의 깊이와 수행의 방법은 달랐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여기며 그 길을 따라 살고 싶다는 귀의의 마음은 같았다.

붓다의 가르침은 가깝고도 멀다면서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사는 방편을 나눈 이 날의 대화는, 신록 아래 꽃비가 어우러진 산중방담(山中放談)이었다. 같은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이 이어지며 또 다른 질문으로 성찰을 일으킨 그룹코칭이었으며, 자신만의 화두를 풀어갔다는 점에서는 셀프코칭이기도 했다.

'불교가 종교인가? 철학인가?' 라고 물으면 '종교는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답하는, 코칭 해법의 대화는 각자의 불심을 일으키며 자신의 작은 진리를 찾아내었다.

이 질문을 따라가며 독자들도 셀프코칭을 해보시길 권한다.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종교는 무엇이며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철학이 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에 대한 탐구라고 한다면 종교는 우주 만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신념과 믿음의 길이므로 불교는 철학을 내포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여러 사상과 가치를 논하지만, 종교는 자신이 믿는 가치와 사상을 대해 말한다. 붓다의 설법을 따라 깨우침의 길을 가는 불교는 분명한 종교이다."

"간결하게 답하고 싶다. 인간의 구원에 궁극의 목적을 둔다면 그건 종교다."

불교의 핵심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초심자일 때는 사성제(四聖諦)의 개념부터 어려웠다. 생로병사가 고통일 뿐이라니, 지나친 비관론으로 여겨졌다.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고의 원인이 무명과 갈애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집, 멸, 도의 의미도 마음에 다가왔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더라도 붓다의 가르침을 깨닫고 수행한다는 데 불교라는 종교의 매력이 있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緣起)가 근본 사상이라 본다. 나의 인생도 연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동요가 덜 생긴다. 잘났다고 뻐길 것도, 못났다고 주눅들 것도 없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빚을 서로 지고 있으니 말이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 다른 이의 평안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행동 하나하나에 그런 생각이 앞서면 허투로 하는 일이 없다."

"그것이 곧 무아(無我)와 통하지 않을까. 홀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다는 무아는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사상이다, 무아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해짐을 느낀다. 불변하는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 아니겠나."

"무아는 곧 공(空)으로 통한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비어있는 상태가 곧 공이라니, 불교는 참으로 역설의 철학이다. 텅 빈 것이 충만하다니 말이다. 연결해 보면 공즉시색과 색즉시공의 경지도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가능하다."

"물질과 마음의 작용인 오온(五蘊)이 실제는 미망(迷妄)이라는 관점이 참 신선했다.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이 다 조건에 따라 한때 생겨나는 환영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툴 일도 분노할 일도 없어진다. 미망에서 깨어나는 일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하나만 붙잡아도 불교 공부는 다하는 것 같다."

코칭대화, 불심 일으킨 동력
사성제 · 108배 · 명상 등 탐구
수행의 서원 도반끼리 다져

불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불교는 절대자를 통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대단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이다. 맹목적이고 베타적인 신앙이 아니어서 불교를 선택했다. 평생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정진한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붓다의 깨달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면 불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삼가고, 매일 선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 속에 있는 불성을 찾아내면 곧 부처가 되는 길이라 여긴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동경했다.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불교를 만났다. 자비가 거창한 베풀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뻤다.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신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큰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 덕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보시하는 삶을 사셨다. 단지 가족의 기복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늘 반성하고 감사하는 일상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 아닐까.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홀로 되셔서 우리를 키우는 일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말씀하신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수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불자 모임에서 경전을 옮겨 적는 사경을 10년째 해오고 있다. 옮겨 쓰고 다시 소리 내어 독경하면 붓다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다. 마치 옆에서 법문을 듣는 것처럼 생생해져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오래 되다 보니 사경한 경전을 묶어서 친구들에게 주기도 하는데 귀한 선물로 여겨준다. 보시도 되니 참 좋다."

"도반의 권유로 108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숙제처럼 여겨지고 한동안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 석 달째인 지난 지금은 몸이 오히려 가뿐해지고 그만큼 마음도 가벼워졌다. 걱정거리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108배 이상 없다. 온 몸을 쓰니까 그런지 오래 된 위장병이 없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되어 여러 모로 이롭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한다.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30분 정도까지 늘일 수 있게 되었다. 한 번은 독감으로 일어나기 힘들 지경이었는데 평소처럼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처음에는 식은땀이 나면서 몸이 가라앉는 듯하였다. 어느 순간 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아픔이 줄어드는 신기한 느낌의 순간이 왔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명상의 맛을 알게 되었다. 뒷날 아침에 명상을 할 생각을 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곤 한다."

이웃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은?

"탐진치(貪瞋痴)의 삼독을 멀리 하려고 애쓴다. 욕심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아도 부처 같은 삶이 아닐까. 불자가 된 후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데 그렇 때 뿌듯하다."

"보시를 늘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주변 사람에게 무엇이든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물질을 내어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다. 자녀를 올바로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는 일도 보시고, 친구를 기분 좋게 하는 덕담 한마디도 보시다. 손해 보는 일이 생겨도 보시했다고 여기면 마음이 편하다."

"가족 사이에 종교 갈등이 있어 푸는 일이 숙제다. 친정에서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이 종교가 달라 불편할 때가 많다. 말로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활방식을 불자답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올해까지 국내 사찰순례가 마무리된다. 사찰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불교 사상을 탐구하는 일이 즐겁다. 내가 이해한 교리와 사상을 쉽게 풀어서 초심자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책을 펴내고 싶다."

연등 아래서 조용하고 겸손한 떨림을 느껴

코칭에서 나눔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와 성찰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리하는 중요한 마무리다. 참석자들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수행의 부족함과 기쁨, 각오를 보다 구체화시켜 다듬었고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하고 진솔한 신행생활의 고백에 부처님의 가피가 스미는 것을 느낀다."

산사에서 내려오는 길, 줄 이어 은은하게 빛나는 연등이 불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서원의 불빛 같았다. 마음에서 조용하고도 겸손한 떨림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마이크 대금은 1년 써보고
아래의 내용과 추호도 다름없을 시 지불

1. 이태리 최고급명품마이크 직수입 한정판매, 시중에 있을시 일천만원 포상
2. 마이크와 50㎝ 떨어져야 수천만대의 시설소리로 업그레이드
3. 비싼시설 말고 마이크 하나만 바꾸어 수 만번의 염불소리를 신명나게 사세요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본래면목'을 찾는 60일간의 여정 불기2563(2019)년
재가(在家) 하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되시길 발원합니다.

수행기간	불기2563(2019)년 **6월 3일** (월) ~ **8월 1일** (목) | **60일**
대상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동참금	**2만원** | **부산은행** 101-2050-6594-01 | **예금주** 조계종 부산연합회
방법	삼귀의 →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 → 수행서원문 염송 → 1일 1선행
입재법회	**일시** : 불기2563(2019)년 6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선원 법당(4층) | **법사스님** : **수불 큰스님**(안국선원 선원장)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051)501-7554**

대강백 무비 큰스님 편찬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반야바라밀경〉사경집을 동참자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60일 수행이력 성취시
안거증이 수여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사성제, 삶 속 실천해 나갈 가르침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⑩ 부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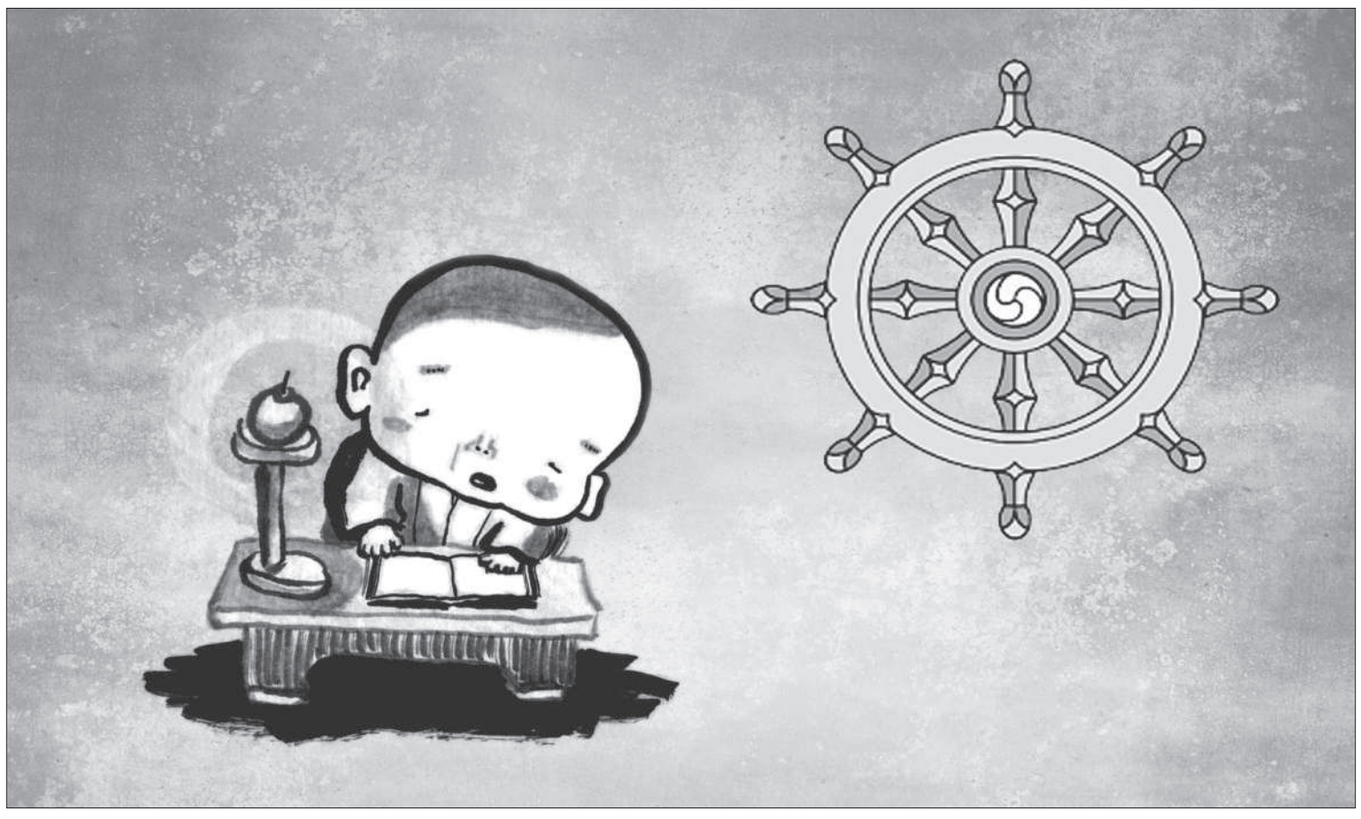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사성제는 우주의 진리가 불교 교리로 체계화되는 과정을 밝히는 개념이다. 삶과 더불어 수행정진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사성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자. 그렇다면 내가 부처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생활이 따라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실천방법이 고 · 집 · 멸 · 도 사성제이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불교를 실천하고 이해하고 체득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고 · 집 · 멸 ·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 · 집 · 멸 · 도를 통해서 생활하고 수행하면 무아 · 무상 · 연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성제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깨치신 것은 연기며, 사성제는 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치신 것이 연기인데 최초의 가르침은 사성제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연기와 사성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먼저 사성제의 가르침이 어떻게 체계화 되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 허리가 아프다는 상태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 가 된다. 병원에 가면 X-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는다.

허리가 뼈가 어긋나서 아픈지, 디스크라서 아픈지 아픈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집' 이다. X-선을 찍어보니 디스크로 판명이 났다.

허리가 아픈 원인이 디스크 때문이었다. 여기서 허리가 아픈 것은 '고' 이며, 원인은 디스크 때문이다. '집' , 즉 발생의 이유는 디스크인 것이다.

이제 수술, 교정 등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치료를 통해 허리가 다 나았다. 아픈 허리가 나은 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멸' 인 것이다.

아픈 허리를 수술해서 낫게 했다면 수술한 것이 바로 실천 방법인 '도' 이다. 또 허리를 교정했다면 교정한 것이 실천 방법인 '도' 인 것이다.

허리가 아프다는 자체가 '고' 이다. 때문에 '고' 는 과제의 제시이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집' 은 X-선을 촬영해 아픈 상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왜 허리가 아픈지 원인을 찾는 것이 바로 '집' 의 발생 이유이다. 허리 아픈 것이 해결되고 극복돼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멸' 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극복된 상태,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 이 된다. 그러면 이 '도' 라는 것은 무엇인가? 허리를 낫게 한 것이 수술과 교정이라면 교정하는 것이 실천방법인 도인 것이다.

고 · 집 · 멸 · 도를 따져보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고 · 집 · 멸 · 도 '사성제' 이다. 과제의 제시, 발생의 이유, 현실의 극복, 실천방법이 고 · 집 · 멸 · 도인 것이다.

묘법 스님의 인과이야기

중국의 묘법 스님이 지은 〈인과이야기〉는 전생의 인과와 현생의 인과 문제를 풀어 놓은 책이다. 책 속에 이 같은 이야기가 있다. 주물공장에 다니는 어떤 성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무단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X-선 사진도 촬영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허리가 낫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허리를 낫게 할 수 없으니 복대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가급적이면 허리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늘 복대를 차고 다녔다.

어느 날 우연히 묘법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께서는 전생의 인과를 잘 보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봐도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찾아 온 사람에게 "자네, 주물공장에 다니고 있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주물공장에서 평생 성실히 일하고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도 올랐고 돈도 제법 벌어서 잘 산다고 했다.

> **부처가 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길 것이**
> **바로 고 · 집 · 멸 · 도 '사성제'이다**

묘법 스님은 "자네 집에는 공장에 있는 것은 다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은 "스님께서 어떻게 잘 아십니까"라고 놀라워 했다. 그는 "공장에 있는 물건들은 자신이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가져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집에서 쓸 수 있는 못과 여러 가지 물건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묘법 스님은 이렇게 경책했다. "자네는 아무 생각없이 공장의 물건들을 평생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도둑질이며 남을 속이는 것으로 죄가 되는 것이다. 자네가 그 회사에 성실히 다니기 때문에 물건들을 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하지만 자네가 평생 갖다 나른 못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각해 보면 자네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지고 온 못과 나사의 무게 때문에 허리를 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남자는 '정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도둑질을 했구나' 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참회했다.

보름 후에 다시 스님을 찾았을 때 남자의 허리는 완벽히 치유됐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수술을 하고 교정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다. 일시적으로는 낫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한 항상 재발하게 된다.

육체에 생기는 병도 단순히 육체의 병으로 여기면 병은 영원히 낫지 않는다. 이생에서 병을 가지고 가면 다음 생에도 그 병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근본적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참회하고 원인을 없애야 한다. 바로 원인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고 · 집 · 멸 · 도, 사성제이다.

싯다르타, 도를 이루어 부처 되다

부처님도 처음 도를 이루고 전파했을 당시에는 인도의 많은 사상가와 다를 바가 없는 한 사람이었다. 정각 이후 부처님은 약 300km 떨어진 바라나까지 전도를 떠난다. 부처님은 깨친 바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부처님이 처음 출가했을 때 도를 가르쳐 주신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6년 동안 고행한 5비구를 찾아갔다. 수소문해 5비구가 있는 녹야원까지 300km나 되는 거리를 보름 이상 걸어서 찾아갔다.

하지만 5비구들은 부처님에게 냉정했다. "당신은 고행을 하다가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닌가. 당신하고 이야기 할 것이 없다"면서 가르침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벗들이여, 내 얼굴을 보아라. 내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빛난 적이 있느냐, 나는 도를 이루었다. 자네들이 내 말을 들어보고 난 연후에 그때 나를 내쳐도 좋다"고 했다. 5비구가 부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 광채가 나면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본 적이 없었던 거룩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5비구들은 부처님과 둘러앉아 공부했다.

부처님이 분명하게 깨우친 것은 연기인데 이 연기법을 사성제로 가르쳤다. 5비구와 부처님은 한 달 동안 설명과 질문을 반복했다. 사성제를 설명해 바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나가서 탁발해 오면 6명이 나누어 먹고 3명이 탁발해 오면 6명이 나눠먹었다. 이렇게 탁발해서 공양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였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하여 비로소 5비구 중에 한 명인 콘다냐가 처음으로 부처님이 설명하신 사성제와 연기의 인식 체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콘다냐가 이해하고 깨우친 것을 보고 부처님은 너무도 좋아했다. "콘다냐가 깨달았다. 콘다냐가 깨달았다"며 부처님은 자신의 정각보다 더 기뻐했다. 이와 같이 최초의 법문은 사성제로 이뤄지게 된다.

필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열심히 사찰에 다녔다. 당시에는 두뇌 회전이 빨라 〈반야심경〉 〈천수경〉은 한 번 들으면 모두 외웠다. 당시 부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으며, 신격화된 부처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불교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대학 다닐 때 현암사에서 번역한 일본판 불교전서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부처님이 참으로 진실되고 솔직한 인간임을 알게 됐다. 부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 책을 보면서 불교를 바라보는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 아마 전생에 열심히 공부한 인연으로 불교경전을 보는 눈이 쉽게 열렸던 것 같다.

대학 1학년이었을 때 사성제를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림을 그렸다. 당시 고안해서 그린 그림은 현재까지 평생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면 각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쉽다.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는 쉽다. 반대로 못하는 사람은 공부가 어렵다.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신나고 못하는 학생에게는 짜증난다. 모든 것은 똑같은 이치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고 · 집 · 멸 · 도를 평생 사용해야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고 · 집 · 멸 · 도를 과제의 제시, 발생의 이유, 현실의 극복, 실천 방법으로 설명했을 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상상해 보자. 알고나면 불교는 재미있게 된다. 그냥 막연했던 고 · 집 · 멸 · 도가 나의 생각과 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신기하겠는가?

〈영남대 의대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변화무쌍한 인간 마음, 그 속에 부처가…



新 불교사자성어

⑱ 심여화사(心如畵師)

'심여화사(心如畵師)' 는 '우리의 마음이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는 뜻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불교사자성어' 로서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변한다.' 고 풍자한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미세하게는 하루에 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한다.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반찬부터 먹을까?' 하고 생각한다. 실제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젓가락을 잡고서도 1~2초 사이에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어떤 반찬을 먹을까? 반찬의 가짓수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반짝거린다. 옛적의 어느 학자는 그런 고민이 싫어서 무조건 앞에 있는 것부터 먹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고 하나보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늑대인가 양인가?' 라고 하여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형체없는 '마음' 깨달음"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에리히 프롬의 분석과 같이 성선(性善)과 성악 모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한 파악일지도 모른다.

유심(唯心)의 철학을 설하고 있는 대승경전인 〈화엄경〉에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心如工畵師), 마음대로 모든 세간상들을 그려낸다(能畵諸世間)"고 하였는데 여기서 '세간' 이란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갖가지 번뇌와 망상을 가리킨다. 물론 부처님 같은 생각도 그려 낸다.

슬픔도 마음이 그려 낸 것이고 기쁨과 근심 걱정도, 그리고 웃음과 눈물도 자신의 마음이 그려낸다. 극락도 지옥도 마찬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고 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말이다.

우리는 똑같은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욕망이 가득하면 그것이 곧 고통의 세계, 지옥의 세계이다. 그러나 무욕하게 지혜의 마음으로 보면 곧 극락이 된다. 무지로 인해 방황하면 그곳이 곧 살아 있는 지옥이고 반야지혜로 자신을 지키면 그곳이 유토피아인 극락이다.

사바세계와 극락은 곧 우리의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것, 나쁘다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 〈화엄경〉에는 "심생즉 종종법생(心生則 種種法生), 심멸즉 종종법멸(心滅則 種種法滅)"이라고 하여, "우리의 이 한 마음, 즉 번뇌가 일어나면 일체 모든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일체 모든 현상들도 동시에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였다.

달마의 〈혈맥론〉에는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찾을 수가 없구나. 넓을 때는 온 세상을 다 감싸고 포용하다가도, 좁아지면 바늘구멍도 받아들이지(수용) 못한다"고 하여, 신기한 마음의 세계, 변화무쌍한 마음의 다양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선에서는 '심즉시불(心卽是佛)' 이라고 하여 '마음이 곧 부처' 라고 한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한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바로 포착 불가능한 형체가 없는 이 마음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다.

〈대승기신론〉에도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가 되는 마음과 중생으로 전락하는 마음(심진여문, 심생멸문)' ,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깨달은 부처가 되기도 하고, 미망의 가을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중생이 되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마음' , 그 마음에서 '위대한 부처' 가 탄생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넘어뜨릴 줄만 아는 '운문'



격절록 강설

⑱ 제6칙 앙산지설(仰山指雪)

[古則과 着語] 就錯)

擧, 仰山指雪獅子云 "還有過此色者麼" (瞎) 雲門云 "當時便與推倒" (不奈船何 打破庠斗)

앙산(仰山, 807~883)이 설사자(雪獅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색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가?" [할(瞎, 눈이 멀었다)!]

운문(雲門, 864~949)이 말했다.

"당시에 바로 밀어서 넘어뜨렸어야 했다." [(구멍 나 물새는) 배는 어찌하지 못하고, 두레박만 깨고 있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只解推倒 不能扶起" (將錯

앙산은 위산(溈山, 771~853)을 전후 20여 년 시봉하면서 수행과 교화(行化)를 함께 했다. 하루는 돌아와 위산을 뵙고 모시고 있는데, 위산이 물었다.

"그대는 (이미) 선지식이라 불리는데, 제방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있음을 아는지(知有) 있음을 모르는지(不知有), 스승을 이어 받은 것인지(師承) 스승을 이어 받은 것이 아닌지(無師承), 의학(義學)을 한 것인지 현학(玄學)을 한 것인지, 어떻게 가려내겠는가? 시험 삼아 말해보라."

앙산이 말했다.

"한 가지 시험해 보는 것(驗處)이 있는데, 제방에서 스님이 오면 다만 불자(拂子)를 세우고 그에게 묻기를 '제방에서 이것(這箇)을 말하는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가?' 라고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놔두고, '제방의 노장들의 뜻(老宿意)은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위산이 칭찬하며 말했다.

"이것이 종문(宗門)에서 수행자를 제접하는 가장 엄격한 수단(牙爪, 爪牙)이다."

✻선문염송집 제 14권, 고칙 567에서는 "이 색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가?"라는 앙산의 물음에 대중이 대답이 없었고, 이에 대해 운문이 염하기를 "당시에 바로 밀어서 넘어뜨렸어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학(玄學)의 사전적인 뜻은 노장사상에 의거한 학문이지만, 여기서는 의학(義學, 문자에 의지해 교의를 연구하는 학문)의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위앙종(溈仰宗): 위산 영우(溈山靈祐)와 그의 제자 앙산 혜적(仰山慧寂)에 의해 비롯된 종파. 위산은 복건성 복주(福州) 출신으로 15세에 출가하여 백장 회해(百丈懷海)의 법을 이었고, 호남성 담주(潭州) 대위산(大溈山)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앙산은 광동성 소주(韶州) 출신으로 17세에 출가하여 위산의 법을 이었고, 강서성 앙산(仰山)에 머물렀다.

〈강승욱 법사〉

[評唱 1]

師云. 仰山侍奉溈山 前後二十餘年 乃去行化. 一日歸省侍溈山 山問 "子稱善知識 爭辨得 諸方來者 知有不知有 有師承無師承 是義學是玄學 試說看" 仰山云 "有箇驗處 但見諸方僧來 竪起拂子 問伊諸方還說這箇 不說這箇 這箇且置 諸方老宿意作麼生" 溈山歎曰 "此是宗門中牙爪"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⑱ 믿음 편 18

책임과 권위 상징 약사여래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말이다.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준엄한 뜻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병자에 대해 치료라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권위를 갖게 된다. 특히 의사는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의사들에게 존경과 권위의 상징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도 그 책임의 무게 때문이다.

책임은 본래 어떤 요구나 부름에 대한 반응(response)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절대적 책임이자 의무다. 책임을 영어로 '반응' 을 의미하는 'responsibility' 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사여래는 이러한 책임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다. 약사신앙은 약사여래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해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려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이분은 본래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如來), 또는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 부른다. 유리와 같은 칠보(七寶)로 장엄된 정토인 동방 정유리세계(淨瑠璃世界)에 머물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의사이자 약사인 부처다.

약사여래는 전생에 약왕(藥王)이라는 보살로 수행하면서 12가지 큰 서원(大願)을 세웠다고 전한다. 모두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생들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며, 외도에 빠지거나 죄를 지은 자들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약사신앙 역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불교의 이상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선덕여왕이 병에 걸렸을 때 밀본(密本)이라는 승려가 〈약사경〉을 염송하고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또한 경덕왕 때는 경주 분황사에 30만 7천 600근의 구리로 만든 거대한 약사여래를 안치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약사신앙이 일찍부터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삼국전쟁으로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사여래는 대중들에게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약사여래는 중생이 아프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사신앙은 오늘에도 대중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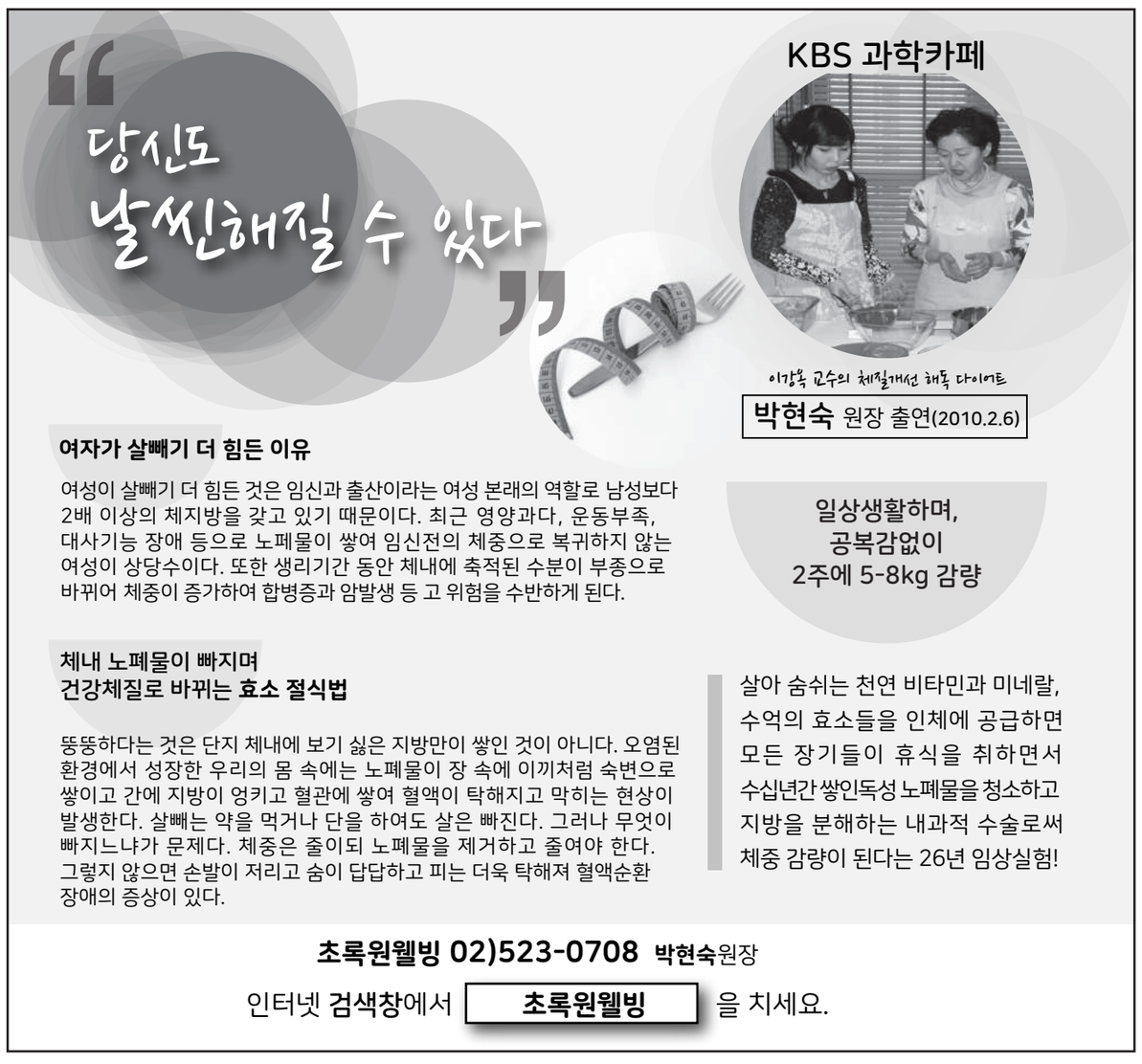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 보현보살을 모신 전각을 대웅전이라 한다. 그런데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여래 세 분의 붓다를 모신 전각은 특별히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 높여 부른다. 물론 이곳에 삼세불(三世佛)이나 삼신불(三身佛)을 모시기도 한다. 약사여래는 바로 이 대웅보전에 모셔진 분이다. 이는 곧 약사여래가 불교에서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생구제라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분을 따로 모신 약사전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그리고 손에는 항상 약함이 들려있다. 중생이 아프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약사신앙이 오늘날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약사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반응, 즉 책임이라는 것을 약사신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의료계가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환자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본다는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찰에 가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약사여래를 종종 만나게 된다.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환한 표정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중환자 앞에서 낄낄대며 웃는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 책임 없는 권위는 모래 위에 쌓은 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오늘날 약사신앙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소년 예체능 이끄는 불자 양성

조계종 직할교구, 제4회 선재장학금 전달식

조계종 직할교구가 수도권포교 활성화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예체능계열 전공 중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4회 직할교구 선재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10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선재장학금은 중고등부 예체능계열 전공 학생 가운데 직할교구 소속 사찰에서 모범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는 △심예린(국립전통예술중2, 해금) △박철희(아현중3, 축구) △조웨이(선화예술중3, 회화) △김연우(인덕원고1, 메이크업) △정우정(안성고1, 회화) △전아형(광탄고2, 축구) △박채연(영신여고3, 피아노) △엄모빈(서울체고3, 배드민턴) △안진우(동성고3, 연기) △김서현(인천백석고3, 작곡) 등이다.

이 자리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호섭 기자**



"원효성지 장안사 순례 인연"

53기도도량 순례단, 부산 장안사 참배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이 천년고찰 장안사를 방문했다.

53기도도량 순례단은 5월 17~18일 장안사를 방문, 108참회 기도와 평화의 불을 분등하고 기념비 제막식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108장학금을 우현빈(장안중2), 이하명(동국대4) 학생에게 전달했다. 장학금은 각 53만원으로 기도도량 순례단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선재동자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선묵 혜자 스님은 학생들이 선재동자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도량을 다니며 신심을 닦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며 바로 이곳이 극락정토"라고 말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부처님 열반상이 있는 원효성지 장안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짓는 것"이라며 "좋은 인연의 복을 아름답게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더불어 사는 것 복지는 일상이죠"

Interview

35년 교수 생활 회향한 보각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20일 중승대서 퇴임법회
교직 회향하며 법문집 출간도
지역 포교하며 '대중 속으로'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중앙승가대 발전을 함께 해왔고, 많은 스님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중앙승가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5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은 퇴임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각 스님은 스님 최초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선구자이자 태두로 손꼽힌다. 1967년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5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상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를,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다. 상지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5년부터 중앙승가대서 교편을 잡으며 35년 동안 승가 사회복지 인력 양성에 매진해왔다.

교편을 잡은 시간이 긴 만큼 보각 스님은 "나보다 제자가 많은 스님은 없다"고 자부한다. 실제 현재 불교사회복지기관 대표의 80%가 보각 스님의 제자로, 그 수만 1천여 명에 달한다.

보각 스님이 당시에는 일반인에게도 생경한 사회복지학을 시작한 인연은 속가 모친 때문이다. 말년 향림사에서 봉사하며 지내던 모친을 보며 은사였던 천운 스님이 "네 어머니만큼만 살라"고 스님을 경책할 정도로 모친의 신심과 자비심은 남달랐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세운 불교 사회복지 원력은 보각 스님이 강단과 현장을 오가는 사회복지학자이자 실천가의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 사회복지를 시작한 이래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만 활동했다. 그렇다면 스님이 생각하면 사회복지는 무엇일까. 스님은 곧장 이야기했다.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그러면서 "일상이 사회복지다. 꼭 기관에서 대상을 수용해서 서비스하는 게 복지가 아니다. 모두가 섞여서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지"라고 했다.

35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한 현재 보각 스님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강진 백련사 주지로 취임하며 사찰 운영과 지역 포교 · 전법을 시작한 것이다. 대중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원력의 외연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다.

"사실 단체나 기관 살림을 운영해 봤으니 아예 초임 주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 · 단체를 운영하는 것과 사찰 살림을 사는 것은 차이가 많더군요. 그래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올해에는 백련사와 지역문화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진불교대학도 맡아 운영 중인데 조금 더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각 스님은 교수 생활을 회향하며 법문집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를 발간했다. 스님은 책을 통해 붓다의 출생에서 출가, 성도, 열반, 가르침을 선사들의 경구를 인용해 쉬운 말로 풀어냈다.

"국내 토목기술로 네팔불자 취업 장려"

터널 개발 특허기술 수출하는
정재민 표준이앤씨 대표이사



지하공간개발 전문 토목회사를 운영하는 국내 불자기업인이 말레이시아 내 네팔불자들의 취업 장려에 나선다. 주인공은 자체개발한 토목기술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네팔불자들로 꾸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재민 표준이앤씨(주) 대표이사〈사진〉다.

정재민 대표이사는 5월 20일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공사가 구축하는 지하 전력설비 공사인 '지중전력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평소 네팔 어린이 장학사업을 펼치는 한국자비공덕회와 인연이 있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의 취업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만 40여만 명의 네팔인 근로자가 생활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한국자비공덕회(회장 지상)가 네팔에서 장학사업을 펼치며 초등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 졸업을 지원, 한국어가 가능한 네팔불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터널 기능공이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주한 네팔인 일부가 말레이시아로 재취업하고, 현지 기능공과 연대해 작업원을 꾸린다는 게 정 대표의 밑그림이다.

정 대표는 말레이시아에 DSM공법을 수출한다. DSM공법은 철도 · 도로 횡단터널 및 다목적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비개착공법으로 모래 · 자갈 등 토사지반에도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어지는 말레이시아 공사에는 100명 이상의 작업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많은 네팔불자들의 근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1990년대부터 부부 도반들과 함께 불교공부모임을 이끌어온 거사다. 당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인연을 맺은 30대 부부들의 취미 모임이 자연스레 불교공부로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방 불교공동체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은퇴 후 서울살이가 어려운 불자들과 함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경기도 양평에 마련하고 있다.

정 대표는 "부지를 마련해 토목기술 재능기부로 작은 마을을 꾸리고, 불교 소공동체가 각자의 신행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스카우트, 방송인 꿈 키워

단원 50명 수원 KBS드라마센터 견학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은 5월 18일 수원 KBS 드라마센터를 견학했다. 청계사, 수원사, 연맹직할대, 정각사 등 4개 사찰과 단체 어린이 50여 명은 방송인 체험 시간을 보내며 미래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다. 청계사 이현준 군(13)은 "직접 기상캐스터 역할을 해보니 진짜 방송인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지역민과 호흡하는 문화축제

한솔종합사회福 '연등물결 한솔愛잔치'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5월 15일 분당 한솔마을 7단지서 제19회 '연등물결 한솔愛잔치'를 진행했다. '한솔愛잔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사회활동, 주민노래자랑 등이 이어졌으며, 1,500여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관장 가섭 스님은 "앞으로도 행복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울산불교 발전에 큰 도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봉축법요식 봉행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5월 12일 대웅전에서 불기 2563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정갑윤 · 이상헌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법요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장 취임 전 화합제부터 연등 장엄 제작과정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다"며 "울산시 제등행렬에 관심 갖고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 광장을 처음으로 내줄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만 월 등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티베트 고위승려 부끄러운 성추문

닥리 린뽀체 향한 피해자들 폭로 잇달아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한차례 홍역을 앓은 티베트 불교계가 다시 시끄럽다. 지난 5월 16일 '트리 사이클' '라이온즈 로어' '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등 주요 불교전문 외신들은 티베트 불교의 고위승려 닥리 린뽀체(Dagr rinpoche)가 3명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닥리 린뽀체는 티베트 불교 최대 종파인 겔룩파의 고위승려로, 영미권과 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티베트 불교단체 'FPMT(대승불교유지재단)' 의 지도법사중 한 사람이다.

논란의 발단은 5월 3일 닥리 린뽀체가 인도 뉴델리서 히마찰프라데시주(州)의 캉그라 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기내에서 30대 인도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뉴스였다. 당시 공항경찰은 캉그라 공항에 내린 닥리 린뽀체를 체포, 조사 후 보석금을 받고 석방했다. 이 사건은 인도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5월 13일 '라이온즈 로어' 는 전 티베트 불교 비구니였던 자카이라 페레즈 발디비아(Jakaira Perez Valdivia)가 동일인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유튜브에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자카이라는 2008년 다람살라에서 비구니로 있을 당시 닥리 린뽀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카이라는 유튜브에서 "당시 나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닥리 린뽀체는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 며 자신을 찾아온 나의 가슴과 골반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티베트 최대종파 겔룩파 소속
대승불교유지재단 지도법사로
한국 · 서양인 피해자 알려지며
티베트 비구니 '진상조사 촉구'

자카이라는 고민 끝에 2010년 피해사실을 4장의 진술서에 담아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과 FPMT 사무국, 캉그라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은 달라이라마 사무국 측에서 3자 대면을 마련하고 닥리 린뽀체가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건이 확대되자 13일 저녁, 닥리 린뽀체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명했다. 먼저 기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에 대해 "지병인 관절염 때문에 바로 앉지 못하고 잠시 좌석에 기대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옆 좌석 여성이 내가 자신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잇단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티베트 겔룩파 고위승려 닥리 린뽀체. 사진출처=트리사이클

자카이라의 폭로에 대해서는 "그녀의 요청에 응해 그 자리에서 장애를 소멸하는 기도를 행했다"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카이라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SNS를 통해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한 세 번째 여성이 등장했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다람살라 티베트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린뽀체를 만난 자리에서 닥리 린뽀체가 자신의 가슴을 잡았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댓글과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여성은 닥리 린뽀체를 친견했던 사진과 당시 경찰에 제출한 조서의 사진을 공개했다.

닥리 린뽀체의 이러한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린뽀체가 활동하는 FPMT의 비구니 스님들을 비롯,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13인이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현재 이들은 "우리들 중 몇몇은 닥리 린뽀체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서양인 여성 출가자들을 알고 있다"고 말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잇단 종교 테러로 '베삭데이'도 침울

스리랑카 종교내전 한 달째
AFP "가짜뉴스 혐오감 조장"

불교국가 스리랑카가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다. '종교 내전' 때문이다. 지난 4월 21일 이슬람 단체에 의한 '부활절 테러' 가 발발, 극우불교단체 등 반(反) 이슬람 단체들의 '맞불'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 AFP 등 외신은 5월 22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종교 내전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부활절 테러가 단초가 됐다. 콜롬보 시내 호텔 및 주요 교회 등 8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57명이 사망했다. 배후로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가 지목됐다.

이후 반이슬람교도의 보복 테러가 시작됐다. 기독교 · 불교도 등은 이슬람사원(모스크)으로 몰려가 돌을 던지고 창문을 깨는 등 건물을 훼손했고, 이슬람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호텔도 테러 대상이 됐다. 일부 극단주의 기독교 · 불교 단체 회원들은 무고한 이슬람교도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특히 지난 5일 콜롬보 북쪽 네곰보 지역에서는 스리랑카인의 주를 이루는 불교도 싱할라족과 무슬림 주민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스리랑카는 현재 곳곳에서 종교 내전이 발생, 당국이 전방위적 통제에 나선 상황이다. 사진출처=AFP

이번 사태는 스리랑카 전역으로 확대, 종교 전쟁이 격화되는 조짐이다. 이 여파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가장 큰 축제인 베삭(Vesak)마저 지난 18일(현지시간) 테러 위협 속 암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스리랑카 불교는 암울하다. 극단주의 종교인들의 테러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베삭 데이가 진행됐다. 일부 불교도들은 평화 ·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AFP는 이 같은 종교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으로 '가짜 뉴스' 를 지목했다. 스리랑카 당국이 SNS를 차단했음에도 불구, 폭탄 테러 관련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이슬람-반이슬람 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스리랑카 정부는 부활절 테러 직후 9일 간 각종 SNS 접속을 막았으나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13일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AFP는 "가짜뉴스는 대부분 특정 종교에 대한 분노 및 혐오감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라며 "부활절 테러 후 게재된 6개 뉴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날조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FP는 SNS 상에 'ISIS' 가 적힌 티를 입은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을 ISIS라고 소개한 한 트위터리안을 '가짜뉴스' 예로 들었다. 해당 트위터리안은 자신을 "스리랑카군 준장"이라고 밝히며 반복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아래에는 이슬람교도와 반이슬람교도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사진은 스리랑카인과는 관련 없는, 5년 전 인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앞으로 달라이라마 개인접견 금지

최근 건강이상설 종식 위해 요양에 집중키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최근 반복되는 건강이상설의 종식을 위해 요양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7일 '티베트 썬' '티베탄 저널'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성명과 공식 사무국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먼저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5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달라이라마 존자를 개인적으로 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달라이라마 존자의 건강과 연세를 생각해 볼 때, 지금과 같은 개인접견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올해 초부터 건강이상설이 불거졌으며 실제 4월에는 흉부감염으로 긴급입원치료를 받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퇴원 인터뷰에서 "1월 보드가야에서 걸린 감염이 완치 되지 않아 재발한 것, 이제는 완전히 나았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을 위해선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달라이라마를 접견하는 이들은 반드시 단체로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이 개인적으로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제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자께서 특별히 바라시는 경우에만 개인 접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외사항을 전했다.

사무국 발표 후 티베트인들은 "발표 전부터 SNS에 달라이라마의 건강을 위해 일정을 줄여야 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이 유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어 17일 다람살라에서 봉행된 장수기원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는 "신심 있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에 매우 건강하다"고 전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역법과 여러 예언에는 내가 113세까지 산다고 한다. 난 지금 매우 건강하며 스스로 110세 이상 살 수 있음을 장담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근 피로를 자주 느낀다. 여러분이 나의 장수를 원한다면 내가 더 쉬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정관 스님은 토리노 시내 동양미술박물관에서 발우공양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출처=AGRODOLCE

伊 4대 도시 토리노, K문화에 빠지다

'한국문화주간' 정관 스님 발우공양 워크숍 '성황'

이탈리아의 문화중심도시 토리노(Torino)가 한국문화, K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토리노시 당국은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 한국문화원 및 주밀라노 총영사관과 함께 '한국 문화 주간' 을 5월 19~24일 진행했다. 이탈리아 통일 후 첫 수도였던 토리노는 로마 · 밀라노 · 나폴리와 함께 이탈리아 4대 도시로 꼽힌다. 이곳에서 대규모 한국문화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리노에 한국 바람이 분다(Vento di Corea a Torino)' 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한국의 대표 문화인 사찰음식뿐만 아니라 K팝, 한국영화, 태권도, 한복, 서예 등이 소개됐다.

특히 한국 사찰음식의 선구자 정관스님이 출연, 시내 동양미술박물관에서 발우공양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관 스님은 몰려든 관광객들에게 발우공양 문화를 선보여 큰 찬사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앞서 현지 언론들은 정관 스님의 발우공양 워크숍을 '가장 기대되는 행사' 로 꼽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K팝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광적 인기도 입증됐다. 19일 오후 시내 발도코극장에서 열린 K팝 경연대회는 K팝 커버댄스 그룹 11팀과 커버싱어 2팀이 무대를 꾸몄다. 340석 규모의 객석이 꽉 들어찼고, 표를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공연장 바깥에 운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충석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은 "이탈리아 내 한류 팬이 서로 소통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대한불교천태종
대성사
주지 김영제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www.daesungsa.or.kr

신인류선경문화창달진인출세
天地大學經
천 지 대 학 경
눈 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들을 지어다!
천지인륜의 도리가 뿌리채 흔들리는 무도한
혼란격동 시대에 천심으로 원시반본하여
천부경 불경 사서삼경 성경으로부터 신선
보살 군자 천사로 거듭나서 출세하는 21세기
『신인류재 창조문화』로 창달하는 "신시대구원
경전" 의 급박한 정보소식을 배달 합니다.
金山 드림
금영출판 671쪽 성의금49,000원
농협: 209-02-679386 김남식
문의: 010-2762-8235
道 政 院

여러 질병을 없애고 예방을 하는
연꽃씨앗 차와
생기호흡 염불
연자효능 비 만 소화불량 당 뇨 고혈압

내장지방이 많으면 만병에 원인이 됩니다.
배가 불룩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내장지방이 과다합니다.
연자육 차와 생기호흡 염불은 내장 지방
감소에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생기는 올바른
호흡법에서 발생됩니다. (생기호흡법
제품설명서 참고)
연자육 차 정량 마시고 생기염불하면 기도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이것은 과학이며
의학입니다. (연자육가루 450g 1개월분)
가격 15,000원 (무료배송)
간화선 염불선 명상 모두 핵심 생기가 없다. 종교의 핵심 알맹이를
모르면 기도에 효과가 없다. 종교와 생기 책은 종교의 알맹이는 1%
미만으로 요약하였고 생기호흡은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과학과
의학적 설명을 하였다. 260쪽 | 가격 15,000원 (무료배송)

계좌안내 : 국민은행 810101-04-301653 예금주 황보병호
HP 010-5556-1526 | 이메일 a66889@naver.com | www.saenggi.net

과거 인연 되짚으며 만나는 내면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⑩ 나만의 인연사전 만들기



'나만의 인연사전 만들기'는 저자 겸 편집자가 '나 자신'이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인연의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그는 나에게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받아 적는 일이다. 사전(事典)이라고는 하지만 단 한 장짜리 사전이어도 무슨 문제겠는가. 글로 적은 후 당장 소멸시킬 원고다. 그런 의미에서 부담 없이,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편찬하는 나만의 사전이다. 〈관점 디자인〉의 저자 박용후는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라고 한다. 나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관점과 정의'를 통해 차별화된 '나'를 탄생시키기.

인연사전을 적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령, 나의 아내나 남편의 이름을 백지에 적어놓고 끄적인다고 하자. 이 사람의 인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사랑스런 강아지? 흠, 그렇군. 이 사람의 감촉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반질반질한 유리창에 뺨을 댄 느낌? 이 사람의 냄새를 딱 잘라 말한다면? 봄 햇살을 받고 있는 마른 수건 내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한 줄로 압축한다면? 이 사람의 색깔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 이 사람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 말, 한 마디만 적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삶의 스토리를 석 줄만 적는다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 나의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등 애착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의 인상착의나 최근에 나눈 대화, 기억나는 일, 그의 언어 습관, 태도, 특이한 버릇, 발걸음 따위 등을 적어본다.

- 친구 혹은 그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다. 그런 후 그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일지, 모양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양일지, 소리나 맛, 냄새 감촉 따위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생각대로 적어보기.

- 친구 혹은 그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다. 그와 나눈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지금 일어나는 생각대로, 시나리오 형식으로 적어가기(기억대로 쓰지 않아도 됨).

- 친구 혹은 그 누군가의 이름을 적은 후, 내가 알고 있는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적는다. 키, 몸무게, 언제 적부터 인연이 됐는지. 그동안 함께 겪은 일 따위에 대해 나의 생각도 적고, 평소 하고 싶은 말도 적는다. 애써 삼갔던 조언, 충고 등도 마음껏 드러내본다.

나에게는 몇 명의 죽마고우들이 있다. 어느 날 이들과 오랜 세월 엮여온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지내오는 동안 여러 차례 관계가 비틀리거나 왜곡되는 일들이 있었다. 소소한 돈 문제나 가족 모임 중 던진 농담이 예기치 않게 내밀한 상처를 건드려서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어떤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친구들의 반응이 서로를 눈치 보게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친구는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다른 관점들이 생긴 거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구러 섞여서 지내왔다. 벌써 20여 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몇 달 동안 서로 통화 한번 없이 지내기도 하고, 어느 시절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전 가족이 뭉치기도 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죽마고우도 세월과 조건에 따라 끊기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서먹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다. 다른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그냥 그 친구들 일이거니 했다. 이런 일들은 친밀한 사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일터에서도 일어났고, 일회성 여행지에도 발생했다. 가족이건, 친구건, 여행지에서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사람 간에는 늘 크고 작은 마음의 파도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오래 묵은 사이일수록 높고 깊고 예리해서 아프기도 깊이 아팠다. 오래 묵은 사이일수록, '아, 모르겠어!' 하는 탄식 또한 깊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친구는 어디가고 딴 친구가 있어? 나만의 인연사전을 만드는 일은, 그런 점에서 특효다. 이런 사태의 근원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 친구에 대한 인연사전이다.

사람 이름 써놓고 끄적이며
소소한 기억을 표현해보자
그를 향한 마음이 꾸밈없이
서서히 내면에서 드러난다

한양률 : 13살 무렵 그가 흘렸던 눈물이 잊히지 않음. 울 때나 웃을 때, 입을 벌리면 오른쪽 위에 긴 뻐드렁니. 기묘한 부조화. 양률이를 떠올리면, 튀김 냄새와 튀김 색 또는 눈물처럼 투명한 색이 떠오른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첫 말이 경음으로 터지는 경상도 사투리 억양도 인상 깊다. 이 친구를 맛으로 표현한다면 짜면서 맵고 단맛의 느낌(무교동 낙지 비빔밥 같은)이다. 이 친구라는 존재를 소리로 표현한다면, 절의 목어(木魚) 두들기는 소리 같다. 고1 시절 만화가게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앞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내 자존심을 긁어댄 친구.

인연사전을 적다보면 차츰 선명해지는 게 있다. 그는 내 생각이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존재일 뿐이구나. 그의 실체를 지금 이 순간에 만나거나 만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코를 큼큼대며 냄새 맡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당신은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느끼며 적게 된다. 당신은 당신 안에 갇혀 있던 그의 이미지, 기억, 대화들을 드러내면서 사실은, 당신의 내면을 보게 된다. 그에 대한 내 마음의 스펙트럼을 카드 펼치듯 펼쳐본 셈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들켰다.

그의 이름을 적고, 그의 이미지를 생생히 현실화시키고, 그와의 대화를 적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제야 그를 더 자세히 알게 됐거나 더 깊이 이해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그와의 관계가 더 깊고, 튼튼하게 교직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니다. 실은, 세월 따라 더 많이 만날수록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졌음을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마치 내가 나를 주시할수록 알 수 없는 게 더 확장되듯이.

욕구 드러내기 – '싶다' 글쓰기

나는 이것을 '싶다, 글쓰기'라고 한다. 어떤 경우든 한 문장의 종결어미를 '싶다'로 쓰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할 때는 내 안에서 뭔가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때까지 펜을 놓지 않는다. 길든 짧든 끊임없이 '싶다. 싶다. 싶다. 싶다'를 연발한다. 이 글쓰기를 통해 나는 온갖 관념, 윤리, 도덕, 법률, 율법, 인간관계의 포승줄에 묶여 있었던 마음의 조건을 시원하게 내던진다. 내 안의 모든 '싶다'들이여, 해방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더냐. 내면의 감옥에 갇혀 있던 '싶다'들을 향해 선동의 주먹을 흔들어댄다. '싶다' 앞에서는 모든 억압, 외면, 회피 따위들이 무력해진다. 살아오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욕망의 언어들이 떨치고 일어선다. 어디에? 당신의 백지 위에!

불교에서 득도의 순간은 모든 욕망이 그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 마디로, 모든 '싶다'의 소멸이다. 먹고 자고 눕고자 하는 본질적 욕구조차 끊어진 경지. 모든 생각이나 감각이 끊긴 자리. 그러다 보니 득도의 경지에 이르면 삶의 의욕조차도 거추장스러운 마음작용이 되어, 사람 속에 섞여 살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사람의 마을을 떠나 숲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욕망이 그친다는 것은 모든 '싶다'의 소멸을 의미한다. '싶다의 역동'은 그동안 숨기고 눌러왔던 언어의 빗장이 벗겨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드러낼 때 쓰는 '희망'도 알고 보면 '싶다'다. '소망'도 젓가락 끝으로 김치를 집는 악력 정도의 '싶다'다. '의욕'은 불고기를 씹는 어금니 같은 '싶다'가 아닐까. 욕구는 어떤가. 무게 중심이 분명하고 묵직한 '싶다'다. 욕망은? 어린애 울음처럼 대책없이 노골적인 '싶다'다. 탐욕? 이것은 신경성 장애에 가까운 '싶다'를 표현한 말 아니겠는가.

지금 열거한 낱말의 의미들을 따지고 보면, 희망, 소망, 의욕, 욕구, 욕망, 탐욕은 각기 다른 표현의 '싶다'이다. 하나의 전깃줄에 앉은 참새들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른 심리적 위치만 다를 뿐이다. 어느 순간, 소망이 탐욕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 본인은 '소망'이라고 외치는데 타인이 보기엔 '탐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싶다'를 당신의 내면에 억눌러 놓을 때와 백지 위에 노출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느낄 수 있다.

- '싶다'를 활용하여 지금 원하는 것을 내면에서 나오는 대로 발설하기.

- 이루지 못했던 일, 이루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등에 대해 '싶다'로 끝맺는 글쓰기.

- 자신의 과거 기억 중에서 미완성, 미해결 과제 등을 '싶다'로 완결한다.

- 5분 후부터 10분, 15분… 시간을 확장하면서 '싶다'로 마치는 글쓰기.

불교학자 정준영은 그의 논문 〈욕망의 다양한 의미〉에서 '초기불교는 욕망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삶을 위한 노동이나 일에 대한 애착, 수행에 대한 열정 등의 '싶다'는 자타를 돕는 원동력이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와 같은 긍정적 '싶다'와 부정적 '싶다'가 혼재돼 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의 '싶다'를 드러내놓는 작업은 대체로 즐거움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왜 즐거울까. '싶다'의 반대 측 언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싫어, 나빠, 안 해, 못해, 안 가'

'싶다' 글쓰기를 하는 동안 가만히 자기 관찰해보라. 마음의 결이 자연스럽다. 우리 삶 전체가 '싶다'를 기반으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싶다'를 지속적으로 발설하는 것은 마음의 결을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이 설사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싶다'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열고 열리는 경험을 하는 이득이 있다. 남들에게는 시시하지만 자신에게는 깊고 아득한 마음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싶다'를 거듭하면, 생각지도 못한 내면 깊은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면에 노출할 수 없는 부도덕, 비윤리, 반사회적 역동들이 왜 없겠는가.

집에 가고 싶다 / 된장국에 보리밥 말아먹고 싶어 / 꿈도 없이 자고 싶어 / 실컷 욕하고 싶다 / 길동아 보고 싶다 / 그 사람 품에 안겨서 쉬고 싶어 / 치킨 뜯으면서 게임이나 실컷하고 싶다 / 편지 받고 싶다 / 내 이야기를 맛있게 들어줄 사람 만나고 싶어 / 늦잠 자고 싶어 / 그만저만 일하고 싶어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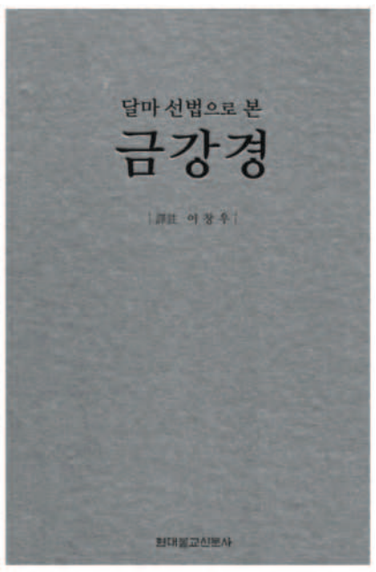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쑥 빼놓고 항상 놓는 습을 가지세요

사계절이 있으면서 나날이 화창하게 햇볕만 나는 것도 아니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을 지낼 때에 우리는 모두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설법하는 것도 여러분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치 못하게, 때에 따라서는 귀중하게, 때에 따라서는 '그 별것도 아닌데….' 할 수 있으리만큼 이렇게 그대로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배우려고 하고 글로 배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공한 주인공,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공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공했기 때문에 세상도 공했듯이 전체가 공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쑥 빼 놓으시고 항상 놓는 습을 가지십시오.

그 놓는 것을 본다면, 엊그저께도 그랬고 항상 말을 하고 나가지마는, 그렇게 많은 나날을, 나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년' 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억겁을 거쳐 온 그 자체의 습이 지금 현실의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각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점에서 내가 공한 줄 알고, 공한 데서 나오는 거 바로 공한 나 자체가 화두인 줄 알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는다면, 진심으로 맡겨 놓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일체 생동력 있는 생수 물이 자기에게 맛을 보일 수 있고 상봉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거나, 경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경을 보고 학으로다가, 말로다가, 이론으로다가 이렇게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네 날이 가도 공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이 밝고 아주 화창한데 꽃이 피었다고 합시다. 봄이 돼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떨어지면 왜 여러분의 마음이 허황되고 또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겠습니까? 꽃이 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꽃이 진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일체 이익이 될 수 있는, 근본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꽃이 피는 것도 아니요, 지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그 가운데 무엇이…. 나한테 일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일러 보실 수 있다면 일러 보십시오. (잠시 사이) 피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일러 보시라는데 여기에서 이 대중이….

우리가 여태 놓는다 안 놓는다는 말 없이, 여여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 문구 자체를 내스스로서 함이 없이 이르실 수 없다면 저, 아주 날은 창창하지마는 안개와 아지랑이가 끼어서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은 "이 눈을 봤느냐? 봤으면 일러라!" 하고서 주장자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참, 날은 어둡구나!" 하고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읊으시고 내려가고 이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린 근본적으로 말과 그 흉내 내는 거를 떠나서 진실한 나의 참나를 알고자 해서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뭣고' 화두나 '무(無)' 자 화두나 '시심마(是甚麼)' 화두를 쥐어서 외려 겉두더기를 붙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면 드는 대로 벌써 상대방에서 나에게 들게 해 줬으니까 의식적으로 벌써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공해서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또 받아서 그것을 들고서 온종일 헤매도, 해는 점점 저물어 가는데 온종일 들고 헤매도 도대체 알 길이 없어서 그만 저녁에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이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이 없으면, 공한 몸이 없으면 또 무효입니다. 더하고 덜함이 없어서 무효니만큼 우리 몸이 있을 때 그 이치를, 부처님이 마음을 전달하신 것을, 그 뜻을 알면 부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부터 헤아릴 줄 알아야 부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면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죠? 무너지면 차원에 따라서 넝마면 넝마로 그대로 있을 거고, 무쇠면 무쇠대로 그대로 있을 거고, 금이면 금대로 그대로 있을 거다 하지마는, 금은 금대로 금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어도 그대로 여여하고, 여러분이 있는 대로 그 부처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무쇠나 넝마, 이러한 차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에 공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없어서 "무" 했던 게 아닙니다. 텅 비어서 빈 게 아니라 꽉 찼기 때문에 비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투면서…. 나투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가, 즉 말하자면 몇 해 전에 조그마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잘라 버리고 접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굵은 거를 접을 붙였더니 그만 그 잔 것이 굵은 걸로 됐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발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 찰나찰나 옮겨 가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옮겨서 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화하고 다른 걸로 화하고. 만약에 고정되게 물을 한 컵을 가지고 요렇게 옮겨 놨다면 옮겨 놓은 걸로 고정되게 그냥 옮겨지기만 하겠지만, 요 물이 요리로 옮겨질 때는 바로 빈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물품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지고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바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수차적으로 이런 말을 해 드립니다. 우리는 24시간 살면서도 항상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화해서 돌아간다고요. 금방 어머니 만났을 때 마음, 친구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지고 또 동생 만났을 때 달라지고 이러듯이, 고정되게 옮겨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해서 옮겨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없다 있다 할 수도 없거니와 또는 내세울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은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나투고 한시도, 일분일초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지 없어서 없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참선이 어떻게 돼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참선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두를 쥐고 좌선을 할 때는 반드시 좌선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는 계율을 지키고,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상식과 더불어 계율은 스스로 지킬 거지마는,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하면 벌써 '참선을 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런 말을 안 해도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참선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선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에 일분일초도 떼어 놓지 않는 참선이, 우리 생활 그대로 자고 깨고 똥 싸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 초도 떼 놓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선입니다. 그러니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 그 도리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아는 거 모르는 거 몽땅 바로 내가 믿고 주인공에 일임해서 놓는다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 지금 육이 나온 것은 육의 탄생이지 참나의 탄생은 아닙니다. 참나의 탄생을 하려면 그만큼 마음의 근본인 참나가 새싹이 터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씨가 여물어서 무르익어야만이 우리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실과는 온 누리의 모든 여러분이 같이 맛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먹을 수가 있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왜 죽는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사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니까 아주 값싸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생공용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내 마음의 향기 에너지는 상대까지도 다 밝아지게 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심으로 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 이렇게 일체 만물이 생기고 만생이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나, 내가 줬고, 내가 망했고 또는 내가 가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 껍질은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습은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욕심은 뗄 수가 없고…. 도대체 자기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데에 모든 게, 자기가 관리인 밖에는 안 되지, 자기 겁니까? 돌고 도는 것인데! 돈도 자기 것만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관리인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하거든요. 자기 거라고 자꾸 독재를 쓰니까 돈이 생각을 할 때 '흥! 네 거라고? 좋아하네.' 그러고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 주면 '아! 여기 가면 관리를 잘해 줘.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서 스스로서 돈이 들어오는 거지, 돈이 달아난 거를 쫓아가고 내 거라고 쫓아간다면 한없이 달아나갑니다. 가난도 붙을 데가 없어서 주인공에다 맡겨서 다 일임해 버린다면 '어어, 내가 이거 정말 원수를 갚으려고, 저 속을 썩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씻은 듯 부신 듯 하니까 에이, 이거 뭐, 안 되겠어!' 그러고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과 더불어 자기도 그 뜻을 알고서 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겁니다. 놔서 녹이라는 거지 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저놈! 조거! 너! 너, 두고 보자. 들어오기만 해 봐라.' 하고 있어 보십시오. 들어오면 미안한 거를 갖는 게 아니라 엉뚱나가게, "야! 뭐!" 그러고 꽥꽥 악을 쓰고 외려 한술 더 뜹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굴리고 돌리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자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의리도 나오고 도의도 나오고, 거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비가 향기와 같이 거기까지 풍겨서 에너지와 같이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공생을 하고 있으니까 공심으로 공용을 하고 있고 공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는 거기까지도 다 밝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외려 들어오기도 전에 바깥에서는 '아, 이거 미안한데….' 하고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보! 나 참 미안했어." 하고서 이런 말 한 마디를 들을 때 겨울에 고드름이 그냥 녹아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녹아 떨어지죠. 그러한 마음이 녹아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장본인입니다.

사랑을 주는 거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도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받게끔 돼 있으니까요. 내가 해 놓은 거 어디 가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 놨어도 나한테 올 것이고 좋은 일을 해 놨어도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면 자비롭게 의리를 도모하고 참, 그렇게 믿는 데에 인내가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이렇게 생활이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입니다. 현실에 나쁘고 좋은 게 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끊어진다면 별문젠데, 세세생생에 억겁을 거치면서 또 얽히고설키고, 그것이 자기 한 대로 얽히고설킬 테니 그거를 어떻게 끊으렵니까? 물질이라면 아예 단번에 끊어 버리고 말겠는데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찔긋찔긋한 인연줄! 그 인연줄은 아무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둘이 되니까 녹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당신이 한 것이니 당신한테 놓는다면 당신이 해결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놓는 거죠. 나온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다시 들어가서 계발이 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만법을 응용하게끔, 거기에서는 생동력 있게 계발돼서 나오죠.

이렇게 일러 드려도 내가 모자라는지 여러분이 모자라는지 분간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모자란다면 모자라는 대로 할 수밖엔 없는 거죠. 여러분이 모자란다면 나도 모자라고 내가 모자란다면 여러분도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높다고 생각한다면 얕고 얕다고 생각한다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한자리 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인간이자,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달한 이 뜻을 서로 파악하고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지금 한 발 한 발 떼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없는 길을 갈 줄 아는 발 없는 발이 된다면 바로 만법을 응용할 수 있는 손 없는 손이 돼서, 눈 없는 청안이 돼서, 참, 평이마가 돼서 평발로서 아주 일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드디어 우리는 한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꽃 핀 것도 아니요, 진 것도 아니니…."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넘겨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를 주판을 놓으면 만 원도 주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 원 안에, 일체 만물 만생 만법이 만 원 안에 들어 있다면 일 전을 놓고 십 원을 놓고 백 원을 놓고 천 원만 놓을 줄 알아도 그 천 원, 이천 원, 만원까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만 원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천 원을 쓰든지 만 원을 쓰든지 그 안에서 다 씀씀이도 쓰는 것이고 갖다 놓는 것도 그 안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포 황 부자는 새우젓을 팔았는데 요만한 됫박을 해 놓고 말입니다, 팔아도 갖다가 넣고 또는 새우젓을 받으러 가도 그 안에서 꺼내서 받으러 가고 이랬답니다. 여기에서 아주 도가 틔었어요. 한군데서 들이고 내고 하기를 참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자 홀연히 어느 날 그 됫박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학교도 짓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새우젓 장사지마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해 가지고 다시 탄생을 해 가지고 이 옷을 벗었으니 세세생생에 거리낌 없이 그것은 대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활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늙으면 "아이, 늙은이가 아무렇게나 살다 죽지, 뭐." 이러지마는 늙은이가 더 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천타불 만타불 해야 되겠고…. 천타불 만타불 하는 것은, 얼마나 능통해서 그 어떤 노인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써 보살이 한 행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우리는 공했으니까 천타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타불 해도 천타불이요, 천타불 해도 만타불이요, 그러면 "하나!" 해도 천타불이 될 수 있고 "하나!" 해도 만타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말해 봅시다. 왜 붙을 자리가 없다 하나? '공해서 붙을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비행기가 말입니다, 앞에 그 뭡니까? 그거 이름이? 그 돌아가는 거.

대중 가운데서 : 프로펠러.

큰스님 : 프로펠러. 그것이 막 공중에서 돌아갈 때 말입니다, 거기 그냥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그냥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을 때에 먼지 붙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머물렀다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와 같은 것이 이 세상 진립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보이길 하나요? 분명코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전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분명코 있긴 있는데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빠져나온 것은 유전자라고 하죠. 그것은 보이긴 보이나 아주 찾기가 힘들다. 어느 누구한테나 그것은 있다. 그러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바꾸어서 나투어 돌아간다' 이런 거를, 운행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방 또 위대한 사람으로서 모습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건 옷을 벗어야 그렇게 되지만 그 옷을 벗기 이전에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꾸 바뀌서 이렇게 나투어 돌아가는 걸 짐작할 수 있으시다면, 바로 그 프로펠러가 그와 똑같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유전자가 보입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그렇게 바꾸어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돌아가는, 운행하는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래서 무전자와 유전자와 지금 육신, 물질 이 자체와, 색신 자체와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것은 자꾸 돌아가는 데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찰나찰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부동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밝아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기를, 항상 밝아서 '컴컴하다, 밝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은하계가 돌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샛별이 돌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살림살이 모두가 다, 우주 섭류가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제 가끔들 소임을 맡아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크나 작으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이 도리를 알면 우리 이 도량에서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시는데도 이런 게 있죠. 야! 어린애가 되어서 작은 것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큰 거나 작은 거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두루 없고, 한다 안 한다 말 없이 모든 걸 일체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단 말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 세상의…. (녹음 안됨) … 전체 이 혹성들이 돌아가는 이 이치, 바로 인간의 미분전(未分前) 의 일로부터, 바로 이 시점의 일로부터 모든 것을 못하는 일이 없게 됐기 때문에 세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에 부처님께서 '나는 사십구 년 설하고도 한마디도 설한 예가 없다' 고 한 이치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겠습니까? 그저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흰 구름이 아주 꽃처럼 뭉게뭉게, 백화로서 뭉게뭉게 돌아가면서 꽃을 피우고 있듯이, 돌고 도는 물처럼…. 말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꽃은 피고 화창하고
꽃이 지니 열매 맺어 무르익으니
이 세상 만 실과가
만 가지 맛이 나고 만 가지 맛을 보니
어찌 이 맛이 좋다 저 맛이 좋다 말할 수 있으랴

이럴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배우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믿고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공부에 유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만 가지로 나는 실과 맛을 꼭 볼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이 있겠습니까?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6년 1월 31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남 장흥 계 암 스님 | 전남 순천 연 오 스님

본 종단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 현불 논단 |

다정이 병이다

주경 스님
조계종중앙종회
차석부의장



언제부턴가 부모님 전화 많아졌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엔 걱정 · 염려만

바로 노인들의 '마음 쓰이는 병'이다
자주 연락해 염려와 걱정 덜어드려야

밤낮없는 두견새 울음은 번뇌의 소리
마음이 물러서인가 가족 · 친구 생각나
잠시 합장하고 그들의 평안 빌어본다

짧은 봄이 다 지나가고 있다. 그리도 분주하게 신명을 다해 준비한 부처님오신날이 반짝 지나고 문득 사월 보름 하안거 결제를 맞았다. 또 한 철이 이렇게 시작된다. 해가 갈수록 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봄이 짧아지는 걸 온 몸으로 느끼게 된다.

늦은 봄비에 마당에 깔렸던 송화들이 다 씻겨가고 젖은 마당을 쓰는 아침이 무척이나 상쾌하다. 길가에 우뚝 솟은 키 큰 아카시아 꽃들은 흐드러지다 못해 누렇게 익어가고, 불현듯 봄을 보내는 마음이 어딘지 모를 아쉬움에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

어머니께서 안부전화를 주셨다. '아픈데 없느냐?' '공양은 하였냐?' '잘 지내느냐?' 등등 말씀마다 염려와 걱정이 뚝뚝 묻어난다. 초파일에 사찰에 다녀가신지 채 열흘이 안 되었는데 노인네의 걱정은 늘 그렇게 진득하다. 부모의 은혜 가운데 끝끝내 자식을 연민하시는 은혜를 거듭 새기게 된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

언제부턴가 아버님도 한 손 거든다. 처음 아버님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혹시 무슨 안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일어났었다.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의 떨리는 음성과 탁한 숨소리를 통해서 느릿하게 전해오는 당신의 말씀은 그저 평이한 안부 말씀이 용건의 전부였다. 당신 평생의 삶을 돌아보아도 결코 이런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너무 뜻밖의 일이라 놀랍고 황당함을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전화가 올 때면 눈물이 날만큼 사무치게 감사하지만 또한 아프도록 죄송한 마음도 함께 일어난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해드려야 할 입장인데 도리어 어른들의 염려를 사고 있으니 이런 불효가 없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지금보다 당신들이 젊고 활기찰 때의 무심하고 덤덤함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매년 추석과 설날에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당신들이 전화를 주시기 시작한 후로 전화를 드리는 일이 줄게 되었다. 노인들의 다정(多情)이 병이다. 마음 쓰이는 병이다. 아무래도 자주 먼저 전화를 드려서 노인네들의 다정으로 인한 염려를 덜고 나의 고민도 덜어내야 할 것 같다.

문득 학창시절 배웠던 '다정가(多情歌)'라고 하는 옛 시조 한 수가 떠오른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랴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산사에 사는 사람만큼 꽃과 달에 친근한 사람들이 있을까. 새벽예불 때 만나는 달빛에 비친 봄꽃들은 그야말로 축복이다. 청량하게 들이쉬는 새벽 숨결에는 꽃향기와 달빛 그리고 별들의 반짝임이 흠뻑 배어 있다.

담담한 호흡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담박하고 무심한 산승의 마음에 은근히 춘심(春心)이 배어드는 시간이다. 밤낮없이 울어대는 두견새와 소쩍새들의 애절한 울음소리 또한 잔잔한 일상을 흔드는 번뇌의 소리들이다.

물러진 마음 탓일까 울적한 기운이 스며든다.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형제들도 생각이 난다. 학창시절 불교활동을 함께 했던 옛 친구들도 생각나고 불교의 홍포와 전법을 위해 애쓰는 법우들과 불자들도 생각이 난다. 길거리에서 또는 높고 낮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평등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들어온다.

잠시 두 손 모아 축원의 마음을 가다듬어본다. 부디 다들 편안하시길, 행복하시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기를,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기를.

社 說

불교 '미디어 正見 교육' 시급

최근 젊은 세대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속 불교 폄훼가 심각하다. 스님들을 위장한 몰카와 자극적인 상황극을 시작으로 일부 인기 스님에 대한 비난도 높다. 지난해 횡행했던 유튜브 속 불교폄훼 콘텐츠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이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금만 자극적이어도 조회수와 구독수가 증가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교와 스님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려고 하는 콘텐츠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혐오범죄의 일환으로도 볼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타인이나 다른 집단을 혐오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형량을 높여 처벌할 수 있다. 양형 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혐오 자체로 처벌을 받는 제도는 없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도 마련과 함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 교육은 양질의 미디어를 가려 볼 수 있는 양식을 키우는 작업이다.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를 피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의 미디어를 접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본격적인 미디어 범람시대, 수많은 불교 폄훼, 비하 콘텐츠를 억제할 순 없다. 이런 콘텐츠 제작도 미디어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디어는 선입견과 편견을 심는다. 이 상황에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불교 콘텐츠 만이라도 제대로된 안목을 가지고 가려 볼 수 있는 청소년 불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팔정도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정견이다. 바로 보아야 방향이 선다. 미디어 시대 미디어 정견을 길러 주는 일에 불교계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숨도' 청년불교 진흥 응원한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신촌 3개 명문대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기독교계 재단이란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불심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신촌지역 3개 대학 연합법회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숨도'는 불교 문화를 신촌지역에 제공하고자 세운 문화공간이다. 숨도는 올해 2월 3개 대학 불교동아리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후 이들 불교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연합법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청년불교 진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작 불자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은 불교계에 턱없이 부족했다. 숨도는 스터디룸, 강당 등으로 이뤄져 있는 문화공간으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외에도 자연스럽게 학업과 단체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 어느때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개방성에 가까운 서강대생들을 비롯해 다소 거리가 먼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까지도 많이 찾고 있다.

이웃종교계는 이러한 공간 마련에 앞장이다. 개신교계는 교회 인근에 다양한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개설하고 있다. 심지어 홍대 인근에는 클럽도 열었다. 먼저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해당 종교를 접하라는 취지다.

한국불교는 청년층 소멸이란 큰 위기에 있다. 한국불교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전법을 해야 한다. 청년들이 쉬고, 놀고, 공부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불교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도와 같은 문화공간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똘레랑스' 없다면 무자격 정치인

혹자는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찬수 강남대 교수를. 현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06년 불교 언론을 비롯해 일간지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유는 이렇다.

개신교 사학인 강남대의 교양필수교과를 교육했던 이찬수 교수는 2006년 1월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유가 "창학이념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서"였다.

창학이념에 맞지 않는 사례는 2003년 이 교수가 EBS의 '똘레랑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찰에서 절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남대 교목실은 이찬수 교수의 행동에 문제를 삼았다. 이에 그는 "모든 기독교인이 배타적이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해임됐다. 이후 이찬수 교수는 복직 소송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에게는 어느 날보다 기쁜 하루가 올해에는 갈등으로 얼룩졌다. 개신교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은해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도 반배도 관불의식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관불의식을 권하자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아마도 합장 반배와 관불의식이 개신교도인 그에겐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불자들은 공분했고 국민들은 "예의없다"고 힐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5월 22일 성명서를 내고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의 논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찬수 교수가 오버랩됐다. 자신의 신앙을 관철위해 관불의식을 손사래 친 무관용의 정치인과 개신교인이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며 불상에 절을 한 신학 교수.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관용의 정치인은 '우상숭배'라는 문자주의적이며 배타적인 계율의 족쇄에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이고, 다른 지식인은 같은 신앙 안에서도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동한다.

일련의 사태를 보고 이찬수 교수는 개신교 언론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개신교가 '우상숭배'라는 '형상 알레르기'에 빠져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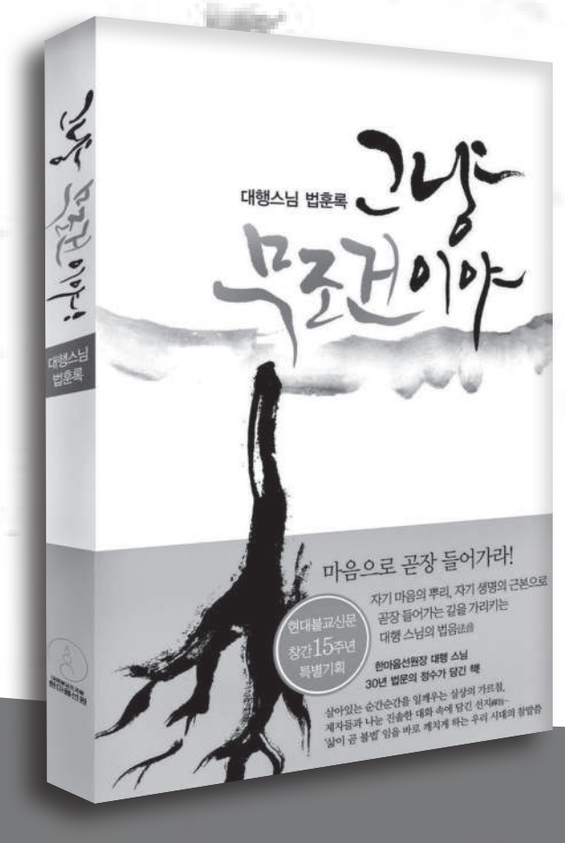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란, 어떤 형상 앞에 절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인간적 욕심 안에 가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행위의 수단 내지 근거로 하나님을 들먹이는 행태가, 하나님을 우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우상숭배인 것이다."

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짐에 있다. 불교는 부처가 됨으로서, 기독교는 구원을 얻음으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배타적 신앙은 자신에는 족쇄로, 타인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간다.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다양성의 사회다. 다양성은 다름을 인정할 때 빛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는 다른 종교 · 신앙을 용인하는 '똘레랑스(Tolerantia, 관용)'가 필요하다. 똘레랑스가 없는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활동하는 데 한국사회가 어떻게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합장 반배도 할 줄 모르는 무관용의 정치인은 '똘레랑스'라는 덕목을 배우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봉사=수행’인 수자타 후예들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은… 1997년 1월 문을 열었다. 현재 300여 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행단체 및 소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울산 대표 봉사현장이다. 개원 당시 주지였던 범해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주지를 역임한 성본, 만초, 남현 스님의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했으며 현 주지 혜원 스님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수자타의 집’에서 봉사중인 해남사 보리회 회원들이 공양을 준비하는 모습.

道伴의 향기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1997년 1월 범해 스님이 개소

밤새 식사 못한 어르신 위해

점심 공양 오전 11시부터 배식

매주 월~토, 매일 300여 명 이용

2011년 리모델링 확장 이전

25개 단체 당번제로 참여

현판 월하 스님 육필

울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어느 날, 수자타는 꿈을 꾼다. “수자타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께 최초의 공양을 올려라” 토지신의 목소리를 듣고 잠을 깬 수자타는 곧바로 소젖을 짜서 정성스럽게 죽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만난다. 수자타는 고타마 싯달타에게 유미죽 한 그릇을 올린다. 6년간의 처절한 고행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있던 싯달타였다. 고행이 깨달음의 방편이 아님을 깨달은 싯달타는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을 먹고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다. 부처님의 삶이나 오늘의 불자 모두에게 수자타의 유미죽은 특별한 공양이 아닐 수 없다. 공양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실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주고받는 모든 공양이 수자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큰 공덕일 것이다. 그 옛날 수자타의 이름으로 공양공덕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이다. 많은 봉사자들이 수자타의 이름으로 공양공덕을 실천하고 있다. 그들에게 대중은 모두 부처님이다. 이 시대의 수자타들을 만나본다.

봉사현장은 설법의 현장…어르신들이 부처님

‘수자타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촉촉하게 비가 내렸다. 수자타의 집으로 들어서자 많은 수자타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갓 지은 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커다란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황태국이 끓고 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반찬 냄새가 피어오르고, 봉사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하다.

잠시 후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들어왔다.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봉사자들은 배식을 시작했다. 따뜻한 공양을 차례로 전달하자 차가운 빗길을 지나온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점심이라 하기엔 다소 이른 시간이다. 기자의 눈치를 읽었는지 한 봉사자가 “아침을 못드시고 오시는 분이 많다”며 기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그랬다. 밤새 굶고 오는 어르신들이 많아 배식 시간도 일반 점심식사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하고, 음식도 소화하기 편한 것들로 준비한다. 건강을 생각해 싱겁게 간을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배가 고픈 것을 넘어 허기진 어르신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수자타의 마음이다.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에 배식을 시작한다. 매일 300여 명이 식사를 하는 곳으로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이 주로 찾는다. ‘수자타의 집’은 1997년 1월에 문을 열었다. 당시 울산 해남사 주지였던 범해 스님(현 중앙종회의장)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해남사 앞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다. 17평 작은 시설에 주방기구와 탁자, 의자가 놓였고 5명의 봉사자들이 의기투합해 어르신들의 한 끼를 해결해야 했다. 이후 2011년 8월, 해남사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를 리모델링해 확장 이전했다. 주방 공간도 좀 더 넓어지고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공간을 옮기고 난 뒤, 장시간 줄을 서는 모습이 사라져 무엇보다 기쁘다고 했다. 지금은 수자타의 집 앞에 새롭게 만든 부스도 눈에 띄었다. 더울 땐 햇빛을 가리고 비가 올 때 비를 가리는 쉼터로 제작됐다. 시설이 좀 더 좋아질 때마다 봉사자들의 얼굴도 덩달아 밝아졌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시설이 더해지면서 봉사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그로인해 ‘수자타의 집’은 울산지역 사찰 신행단체들의 봉사 기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신행단체 뿐 아니라 이웃종교 및 기업들의 나눔터로도 확장됐다. 현재 해남사 봉사팀 보리회 뿐 아니라 적십자 조은 봉사단을 비롯한 24개 팀이 매일 당번제로 봉사를 진행하고, 대영아스콘 사업, 울산나눔회, (사)한국수소사회봉사단 등 기업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 내 구암문구, 다아라식육점, 울산 숯불갈비, 성안 황토방 등 작은 가게들도 나서서 식자재를 후원한다. 울산을 대표하는 봉사 일번지다.

하지만 ‘수자타의 집’의 가장 큰 의미는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봉사자들은 “어르신이 부처님이다”고 입을 모았고, 단순히 자신의 상을 높이는 봉사에 그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의미라고 이야기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어르신들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특히 봉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해남사 불자들은 신행학교에서 기초교리를 배운 후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수자타의 집을 찾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은희(60 · 묘주향) 봉사자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이다”며 “라디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각인이 됐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매일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걸으면 변하는 것들

B5
문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절집의 어떤 하루’ 展

B6
학술 · 문화재
주목! 학술서 〈한국불교사 궁구〉

24개 모임 참여… 울산 지역 봉사 '중심'



해남사 보리회 회원들.



해남사 보리회 회원들이 공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자타의 집'

B1면에서 계속

최천선(58 · 묘운화) 봉사자는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똑같아질 모습이죠. 그분들이 찾아와 공양을 드실 때 그분들이 복 짓게 해주시는 부처님이란 걸 느낍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봉사자는 봉사를 통해 마음이 커지는 보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도 했다. 오정학(63 · 상품화) 봉사자는 "길을 가다 어르신을 뵈면 나도 모르게 행복과 건강을 기도하게 된다"며 "따뜻하게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볼 때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어르신들이 주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수자타의 집' 탄생

수자타의 집을 이끌고 있는 울산 해남사는 통도사에서 문을 연 도심 포교당이다. 1911년 당시 통도사 주지 구하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해남사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문을 열었다. 울산 청년불교운동의 중심인물들과 항일구국운동을 목표로 조선불교청년회로 활동하며 통도사불교청년회, 울산불교청년회와 협력했다. 해방 이후에는 야학원, 고등학습회, 해영학원, 유치원 등 교육을 담당했다. 처음 해남사가 들어설 당시, 울산시 중심지로 가장 큰 번화가인 곳에 위치해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담당했다.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울산은 공업도시로 큰 성장을 거듭했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해남사 주변은 점점 중심에서 멀어졌다. 몇 년 사이에 해남사 주변은 젊음의 거리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구도심으로 바뀌었다. 그때 당시 해남사 앞 50m 앞에 위치한 동헌(東軒)은 울산시의 유일한 공원이었고 어르신들이 친구를 찾아 바둑과 장기를 두며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해남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해남사에서 행사나 법회가 있는 날이면 어르신들은 함께 공양을 했다. 범해 스님은 어르신들이 절을 찾을 때면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법회가 없을 때 어르신들께 공양 올릴 방법이 없었다. 고민하던 범해 스님은 1996년 해남사 앞에 있는 제과점을 인수한다. 스님은 모두에게 공양을 베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과 같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그런 의미를 시설의 이름에 담고 싶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스님의 머릿속으로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수자타의 집' 이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불자들의 집인 것이다.

범해 스님의 원력불사에 울산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매주 스님들은 순번을 정해 직접 신도들과 함께 찾아왔다. 당시 내원암 만초 스님, 법륜사 정진 스님, 옥천암 영안 스님, 등용사 본명 스님, 학성선원 우룡 스님, 청룡암 종현 스님 등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다. 통도사 방장이었던 월하 스님은 칭찬을 거듭하며 직접 한글로 '수자타의 집' 현판 글씨를 적어주고 격려하며 후원금도 전달했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해남사 주지를 역임했던 성본, 만초, 남현 스님 그리고 현 주지 혜원 스님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불자들은 재를 지내거나 생일 등 개인적인 행사가 있으면 보시금을 내고 후원하는 곳이 됐다. 말 그대로 경남 불자들의 정신이 깃든 곳으로 자리 잡게 됐다.

봉사가 부처님 공부

"봉사하며 부처님 가르침 공부"

"아는 것이 힘 아니라 실천이 힘"

"어르신들이 곧 나의 부처님"

해남사 신행학교 출신들 봉사터

행복의 근원 봉사에서 찾아

"봉사는 스스로를 지키는 계율"



2018. 12. 김장봉사.

현재는 불교대학으로 운영되는 해남사 신행학교 출신들의 봉사터가 되고 있다. 신행학교는 현재 15기, 총 1500여 명이 졸업했으며 지금은 16기가 공부 중이다. 수자타의 집은 졸업생들의 봉사 모임인 보리회의 수행현장이 됐다. 봉사자들은 '봉사' 를 하라고 권한다. 그들은 행복의 근원을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봉사는 스스로를 지키는 계율이 된다고 했다. 봉사가 계(戒)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들이 봉사에 가치를 두는 만큼 봉사를 아름답게 회향하려면 평소 행동이 바르고 맑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해드리려 찾아오는 날에는 미리 집 안 일을 깨끗이 해두고 상차림도 신경을 더 씁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요.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봉사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과 밖이 다르냐는 비난입니다."

이기숙(57 · 혜명심) 봉사자의 말이다. 어릴 때부터 해남사서 공부하며 학생회 출신으로 부처님오신날이면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이어온 그녀이다. 수자타의 집에서의 봉사는 5년차다.

"봉사가 진짜 나눔이 되려면 일상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했어요. 봉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8남매 중 막내이지만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봉양도 안하면서 다른 어른들의 식사를 차리는 건 기만이라 느꼈기 때문이지요"

봉사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항상 하게 된다고 했다. "나의 봉사는 떳떳한가?" 그들에게 봉사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죽비가 되었다.

정옥순(60 · 보화수) 봉사자는 "봉사는 삶의 활력소다"며 "고된 직장 업무로 일이 힘들 때 봉사는 오히려 힘을 채워주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다.

22년간 수자타의 집에서 봉사를 이어온 창립 멤버 김태언(57 · 보문행) 봉사자는 "아이가 태어나고 8살 되던 해, 수자타의 집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지만 잔소리가 아닌 살아 있는 모범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엄마를 보며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을까요? 봉사는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집을 가꾸며 평소 불자로서 흠 잡힐 부분이 없어야 비로소 봉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해남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남사 인근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중구청은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수자타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주지 혜원 스님은 "같이 개발되어 더 좋은 환경이 제공 되지요" 라고 짧게 답했다.

해남사가 혹시라도 사라질까 염려한 기자의 질문에 "없어지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는 답이었다. 이어 혜원 스님은 수자타의 집을 '분별심을 넘어서는 성장터' 라고 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현장이란 뜻이다.

"숨어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봉사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이 부처라는 말인 동시에 봉사하는 그들이 바로 부처라는 뜻이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양' 은 부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부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 수자타의 집에선 지금도 깨달음의 공양이 고슬고슬 지어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주 지 도 제



새벽예불 | 새벽 4시 15분
초사흘 법회 | 음력 1일 ~ 3일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아함경 강의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새벽아함경강의 | 새벽 5:45 ~ 6:15
지장재일법회 | 음력 16 ~ 18일
선재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목련합창단 연습 | 매주 수요일 오후1시
사시예불 | 매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 음력 24일
반야심경 강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기본교리 강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산정동) | 062)955-4407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 공동체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 장 김 성 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월 8일, 15일, 23일, 30일 사재일에는 오계를 꼭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계를 받고 사재일에 오계를 지킴으로 스스로 불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불교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명상 · 힐링 상담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참선수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참선 철야 수련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 053) 621-2256 www.tongsub.com

순례길 걸으며 '심신 치유' 느끼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㉑ 걸으면 변하는 것들



계곡사이로 난 길을 따라 이어지는 아침의 순례길. 38번 사찰로 가기 위해서는 2일을 꼬박 걸어야 한다.

새벽 한기에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다. 37번에서 7km가량 떨어진 휴게소에서 노숙한 하룻밤. 두 사람이 정원인 휴게소에 세 사람의 순례자가 묵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고만고만하고, 또 묵는 포인트들이 뻔하다 보니 노숙 순례자들은 자주 마주치게 된다. 어젯밤 같이 묵은 순례자들도 모두 길에서 봤던지 같은 곳에서 하룻밤 같이 묵었던 이들이었다.

38번 콘고후쿠지(金剛福寺)는 여기서 부지런히 걸어서 이틀 길. 시코쿠의 땅끝인 아시즈리(足摺)곶을 향해 가는 길이다. 처음 순례할 땐 한여름 땡볕에 덜컥 겁을 먹고 중간까진 전차를 타고 이동했었다. 하지만 순례길이 국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마을들도 지나치기에 지루하지 않다. 전날 묵은 휴게소에서 꼬박하루, 35km 정도 걸어가면 다시 묵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아직 자는 이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짐을 싸는데 다른 순례자들도 일어난다. 다들 졸린 눈을 비벼가며 짐을 싼다. 노숙 순례자들이다 보니 짐을 매일 싸고 푸는 것에 이골들이 나 금새 배낭을 다 챙기곤 멍하니 벤치에 걸터앉는다.

"다들 커피 어떤가?"

버너를 들고 다니는 순례자가 물을 끓이며 묻는다. 지난번 국민숙사 토사에서 같이 묵었던 오카야마 할아버지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눈이 뜨이지 않는다며 일부러 코펠과 커피를 들고 다닌다고 했다.

거절하지 않고 냉큼 발우를 들이밀었다. 컵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으니 발우가 컵이다. 셋이서 커피를 나누자 할아버지는 조금 남은 커피를 컵에 담아 휴게소에 모셔진 코보대사상 앞에 올렸다.

"안계시면 모를까, 계시는 분을 빼고선 우리만 마실 순 없잖아?"

할아버진 없던 신심도 생겼다며 웃고선 커피를 마셨다. 나도 발우를 두 손으로 들고 선 공양게송을 외우고 커피를 들이켰다. 뜨거운 커피에 산속의 한기가 한순 가신다.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니 다들 목적지로 생각하는 곳들이 예상 범위 내였다. 나는 시만토(四万十)강변 있는 대사당을 목표로 잡았다.

발우를 닦아 배낭에 넣고서 일어났다. 주머니에 넣어둔 염주를 두 손 사이에 넣어 합장하고서 오늘도 진언을 염송하기 시작했다. 팔이 움직이며 염주가 잘그락 거리는 소리가 제법 듣기 좋다.

순례를 시작한지 보름이 넘어 가다보니 몸의 균형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간다. 첫날엔 땀이 비오듯 흘러 앞이 안보이고, 걸음을 옮길 때 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가뿐하다. 어느 때엔 스스로 놀랄 정도다. 허기짐도 딱 몸이 필요할 때 허기져 하루 세끼를 정확히 먹게 되고, 또 과식하는 등의 몸이 무리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된다.

순례 중에 만난 한 일본 스님은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자연 그대로의 몸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사례를 들었다.

"어느 순례자가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찍었어요. 그리고 순례를 마치고선 첫날의 자신과 마지막 날의 자신의 사진을 비교해 보았더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나도 이 이야기에 조금 자극을 받아 매일 사진을 찍어 보겠노라 다짐해 봤는데 결국 지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순례를 마치고 찍은 사진과 순례 첫날에 찍은 내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스스로 달라졌다는 느낌이 보였다.

많은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오헨로(순례) 병원"이라고 한다. 몸은 조금 피곤할지언정 점차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시코쿠 순례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등교 거부 학생들을 갱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이야기를 해준 일본 스님은 자신이 만난 어느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살을 하고자 시코쿠 순례를 왔었단다. 죽기 전날 마지막 추억삼아 어느 순례자 휴게소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스님이 노숙을 하게 됐고, 같이 한잔 두잔 걸치다보니 속내를 듣게 됐다.

스님은 이야길 다 듣고서 기왕 죽을 것이면, 순례 공덕이라도 짓고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들이 미리 써둔 유서와 신분증들은 스님이 거두고선 88번까지 다함께 걸었다. 회향하던 날, 88번 사찰의 산문에서 유서와 신분증을 돌려주며 스님은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자신들이 써둔 유서를 다시 읽어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유서를 버리고 새사람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보름 지나니 신체 밸런스 좋아져
걸음도 많이 개선… 변화들 확인
자살 시도자들 순례 후 새사람 돼
사찰에도 영험담 많은 '치유의 길'

"그들이 모여서 시코쿠에 온 것도, 내가 그날 마침 그곳에서 묵게 된 것도, 모두 대사의 인도하심이겠지요. 이곳 88개소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시겠다는 발원으로 대사가 연 길입니다. 사찰들 중에는 병고에서 벗어났다는 영험이 왕왕 전한답니다."

시코쿠 순례의 시작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 코보 대사가 중생들의 병고와 재난을 소멸하는 발원으로 길을 열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또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88개소 곳곳에 재액을 소멸한다고 전하는 불상이나 자연물들이 모셔져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과연 시코쿠 순례가 치유의 길은 맞는 듯하다. 당장 나 자신도 길을 걸으면서 많은 위안과 치유를 받았다. 또 그렇게 받은 힘이 일상 속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나를 지탱해 준다.

오늘의 순례길은 국도 56호를 따라 걷는 길이다. 어젯밤을 보낸 휴게소에서 10km 가량을 걸어 계곡길을 빠져나오니 탁 트인 길이 나타난다. 좌측은 바다, 우측은 산을 끼고 걷는 단조로운 길이지만, 경관을 살려 만든 공원과 전망대들이 드문드문 길 옆에 산재해 있다. 적당한 벤치에 앉아서 아침을 먹을까 했지만 새벽녘에 마신 커피 덕인지 몸에 힘이 들어가 그냥 걷기로 한다. 대신 짐 무게도 줄일 겸 예전에 보시 받았던 귤을 까서 우물거리며 걷는다.

그렇게 5시간가량을 꼬박 걷고서 배가 고파 좀 힘들다 싶어서야 배낭을 내린다. 아침이라기엔 늦고, 점심이라기엔 좀 이른 시간이다. 해수욕장 옆에 있는 안내센터에 들어가 배낭을 내리고 미숫가루를 꺼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서 안내센터를 휘적휘적 돌아보니 근처 해수욕장이 시코쿠 관광명소인 스나하마 미술관(砂浜美術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룻밤 신세를 진 순례자 휴게소. 중앙에 코보대사상이 모셔져 있다.

스나하마 미술관을 우리말로 옮기면 '모래사장 미술관' 이라는 말이다. 이리노(入野)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부지로 건물을 짓지 않고 작품을 설치해 전시하는 독특한 전시장이다.

스나하마 미술관의 명물은 매년 5월에는 열리는 '티셔츠 아트전'. 하얀 티셔츠를 로프에 걸어 빨래를 널 듯 전시하는데, 각 티셔츠에는 전시회에 응모된 그림이나 사진이 프린팅 된다. 올해(2019)로 벌써 31회째. 몇 백 장의 흰 티셔츠가 바닷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장관이란다. 순례자들 가운데는 일부러 이 모습을 보기 위해 5월에 맞춰 순례를 오는 이가 있을 정도지만 실제 만나지는 못했다.

지도를 펴서 남은 거리를 가늠해 본다. 지도상엔 오늘 묵을 다케시마 대사당(竹島大師堂)까지 겨우 10km다. 10km면 서둘러 걸었을 때 2시간 반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 순간 내가 잘못 계산했나하고 출발한 휴게소부터 다시 거리 계산을 해보니 틀림이 없다. 시코쿠 순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열심히 걸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이르게 도착해봤자 남는 시간이 무료하다. 첫 순례 때의 추억이 있는 고츠카 대사당(古津賀大師堂)을 들리기로 하고 계산을 해더니 고츠카 대사당을 들려도 1~2km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조금 지도를 들척이다 보니 지도에 남겨둔 메모가 눈에 들어온다. 다케시마 대사당에서 조금 내려간 곳에 있는 카페에 대한 메모.

그제야 일본 지인이 대사당 근처에 카페를 개점했다는 게 기억났다. 첫 번째 순례에서 만난 치카 씨는 우연히 내가 시코쿠에 처음 발을 딛던 날, 도쿠시마로 향하는 버스를 같이 탄 인연으로 이어졌다.

시코쿠에 사는 치카 씨는 한국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고, 나는 순례를 위해 시코쿠로 향하던 길이었으니 자연스레 이야기가 이어졌다. 덕분에 첫 순례와 두 번째 순례 때는 하룻밤 신세를 졌다. 이후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세 번째 순례 직전에 친환경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위치가 순례길과 이어지지만 빙 돌아가기에 그냥 전화만 하고 지나칠 생각이었는데 이리 되면 한번 들려보는 게 좋아 보인다.

치카 씨의 카페를 들리고, 고츠카 대사당을 참배하면 보통 하루가 마치는 시간인 대여섯 시에 다케시마 대사당에 도착할 듯했다. 경로도 정해졌고 일단 치카 씨에게 전화를 했다.

"치카 씨! 저 순례 또 왔어요! 지금 치카 씨 카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리노역 앞이에요."

"바로 근처네요. 그럼 우리 카페 들렸다 가세요."

불법(佛法)에 우연은 없다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어제 같이 숙박한 할아버지 덕에 모닝커피를 마셨고, 그 힘으로 부지런히 걸었다. 걸으면서 걸음걸음 기도를 했고, 그 덕에 스스로 몸이 변하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인연들이 하나하나 순례를 이어나가게 하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되는 것이리라. 코보 대사는 치유의 길을 남겨 뒀다.

〈자유기고가〉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울릉도 요양원 나눔 전달

지난 4/28~30일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스님 이하 포교원장 동화스님, 사회부장 원각스님, 추송스님 외 신도일동은 울릉도에 위치한 영불원 요양원을 방문하여 떡가래,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 종정 법운 합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7~5/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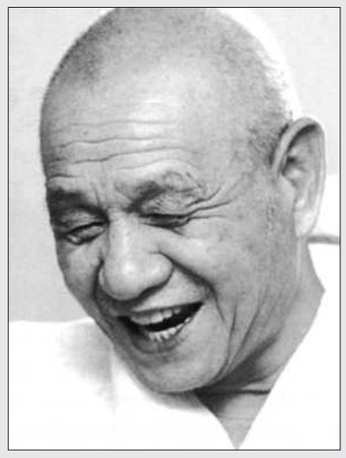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행복의 그릇을 채워주는 365일 마음공부	무명스님	쌤앤파커스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마하시 사야도의 담마짝까 법문(초전법륜경)	마하시 사야도/일창스님	불방일
3	나는 중이 아니야	진광스님	불교신문사	8	꽃에 향기를 더하다육조 혜능, 천로 이부 금강경 해설	원정스님/정안스님	조계종출판사
4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9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보각스님	불광출판사
5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10	분양무덕선사어록	석영곡	민족사

마음속 큰 산 '키다리 스님'의 기억들



설악무산, 그 기억과 흔적

김병무, 홍사성 엮음/인북스 펴냄/1만 2천원



큰스승으로 기억한 48편 글 모아
신분 차별없이 다양한 사람 교유
한글 선시조 개척, 문학사 큰공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지난 5월 16일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지난해 입적한 신흥사 조실을 지낸 설악당 무산 스님의 1주기 추모 다례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평소 도반이었던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무산 스님 어딜 가셨어요. 잠시 돌아 앉아 하고픈 일 있어 적정 삼매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셔서 곳 중생들 마정수기 하셨습니까. 도솔천 내원궁에서 목청껏 무생곡을 불렀습니까. (중략) 속히 대적 삼매에서 깨어나소서. 영남루에 봄바람 일어 천하가 태평합니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가슴에 무산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사무치게 해 주었다.

무산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가 배출한 큰 스승 가운데 한 분이다. 동진 출가해 조계종 선승들의 추대로 설악산 조실에 오른 불교계의 큰 산이었다. 특히 무산 스님은 신분이나 직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많은 이들과 만났다.

위로는 국가지도자부터 아래로는 시골 촌부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으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교유했다.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배웠으며, 시대와 고락을 함께길 주저하지 않았다. 시인이기도 했던 무산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해 현대한국문학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언행록에 필진으로 참여한 분들의 면면 역시, 스님의 교유 범위만큼이나 다양함을 자랑한다. 무산 스님과 수십 년 동안 설악산문서 함께 수행하며 교분을 나누었던 도반 스님들과 사형 사제, 불가의 후학들은 물론, 문단의 중진들과 정계 인사들,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스님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특히 무산 스님 입적 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의를 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글에서부터 스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이장의 회고담에 이르기까지 스님을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는 시대의 큰 스승으로 기억하는 48편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무산 스님 1주기를 맞아 펴낸 이 책에 실린 회고담이 스님이 보여준 가풍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어쩌면 여러 사람이 각기 만져본 코끼리 다리에 대한 기억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책으로 엮는 것은 생전에 스님이 보여준 본지풍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아직 어리석은 후학들이 살아가는 데 지남으로 삼기 위해서다. 엮은이 김병무와 홍사성은 한때 절집에서 무산 스님과 사형 사제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속가에 나와서도 불교출판과 언론 쪽에서 일한 덕분에 오래도록 곁에서 모실 수 있었다. 아직 물어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생사를 나누게 되자 그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해 생각해보니 옛사람을 본받아 언행록이라도 간행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일 같았다.

이에 부랴부랴 평소 가까웠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과 추억담을 수집해 한 권의 책으로 엮기로 했다"고 엮은이의 취지를 밝힌다.

이 책서 필자들은 해골 인형을 곁에 두고 본래면목을 상기하며 하심과 무욕의 삶을 살아온 수행자, 만해축전과 만해대상으로 현대의 한국인들에게 만해의 자유와 생명 사상을 새롭게 고취한 대사상가,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 일깨우는 선승(禪僧)으로서 풍모를 보여온 스님과의 생전 일화들을 진솔히 소개한다. 한국 선시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시인이면서도 스스로 빛나기보다 남을 빛내주는 일로 평생을 헌신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오현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저마다의 기억 속에서 다양한 화법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조오현(曺五鉉)으로 알려진 설악당 무산 스님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밀양 성천사로 동진출가, 인월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젊은 시절 금오산 토굴에서 6년 동안 고행했으며 설악산 신흥사에서 정호당 성준화상을 법사로 건당했다. 뒷날 신흥사 조실이 되어 설악산문을 재건했으며,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되었다. 만년에는 백담사 무문관에서 4년 동안 폐관정진하다 2018년 5월 26일(음력 4월 12일) 입적했다.

저술로는 〈벽암록 역해〉 〈무문관 역해〉 〈백유경 선해(禪解-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선문선답〉 등이 있다. 일찍이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하여 현대한국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시집으로 〈심우도〉 〈만악가타집(萬嶽伽陀集)〉 〈절간 이야기〉 〈아득한 성자〉 〈적멸을 위하여〉 등이 있다. 은관문화훈장,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으며 DMZ 평화대상, 조계종 포교대상, 남명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공초문학상, 고산문학대상, 이승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생전에도 생사 초탈한 분"

불가에서 '마지막 무애도인' 으로 존경받으셨던 신흥사와 백담사 조실 오현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한글 선시가 너무 좋아서 2016년 2월 4일 〈아득한 성자〉와 〈인천만 낙조〉라는 시 두 편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털어놓자면, 스님께선 서울 나들이 때 저를 한 번씩 불러 막걸릿잔을 건네주시기도 하고, 시자 몰래 슬쩍슬쩍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묵직한 '화두' 도 하나씩 주셨습니다.

언제 청와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제는 제가 막걸리도 드리고 용돈도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스님께서 옛날 일을 잊지 않고 〈아득한 성자〉 시집을 인편에 보내오셨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아뿔싸!'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스님은 제가 만나 뵐 때마다 늘 막걸릿잔과 함께였는데, 그것도 그럴듯한 사발이 아니라 언제나 일회용 종이컵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생사일여, 생사를 초탈하셨던 분이셨으니 '허허' 하시며 훌훌 떠나셨을 스님께 막걸리 한 잔 올립니다.

진리의 말씀 쉽게 해석



법현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법현 스님 지음/숨 펴냄/7,900원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시 423편을 담은 불교 경전 〈법구경〉은 본래 고대 인도어로 '담마빠다(Dhammapada)' 라는 제목으로 전해졌는데, '가르치는 말씀' 혹은 '진리의 말씀'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신자이거나 그저 참고삼아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경전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불교 서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역본이 출간됐는데, 한자는 물론 일본어, 영어, 독일어 번역본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책부터 인도 고어인 빠알리어를 직접 번역한 책도 나와 있다.

당연히 역자의 시각과 편의, 의도에 따라 직역과 의역이 혼재돼 있는데, 법현 스님은 가장 쉽게 풀어쓴 법구경을 나누고자 했다. 전문가의 시각이 담긴 난해한 풀이와 깊은 사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불교신자와 이웃들이 누구나 쉽게 읽고 새길 수 있는 부처님의 시를 전하고 싶었다.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법현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은 누구든지 한눈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쉬운 풀이와 해석을 담고 있다.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라는 제목에 '법현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Dhammapada with Dhammupada)' 이라는 부제를 단 것은 역자인 법현 스님의 이름 법현(法顯)을 빠알리어로 '담마우빠다(dhammaupada)', 줄여서 '담무빠다(dhammupada)' 라 해서 '담무빠다와 함께하는 담마빠다' 라는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시 전체 423게송은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네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 아라한의 길에서' 는 제1 쌍품서 제7 아라한의 품까지 99게송을 묶었다. '둘, 붓다가 되는 길에서' 는 제8 일천품에서 제15 행복품까지 109게송을 묶었다. '셋, 바르게 가는 길에서' 는 제16 아낌품에서 제21 이런저런품까지 97게송을 묶었다. '넷, 수행자의 길에서' 는 제22 지옥품에서 제26 바라문품까지 118게송을 묶었다.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읽는 이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펼쳐 읽어도 그 안에서 마음을 물들이는 깨달음의 시가 다가올 것이다. 한편 이 책의 저자 법현 스님은 전남 화순 출생으로 중앙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서 석·박사를 수료했다. 서울 은평구 열린선원서 14년째 전법 중이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불교실 세계선원을 법호 스님과 함께 개원해 이끌고 있으며,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를 맡아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에게 수행 불교의 참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 교무, 사회부장,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재임 시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바 있다. 저서로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사람〉 〈그래도, 가끔〉 등이 있다. 법현은 법명, 무상은 법호, 담무빠다는 빠알리어 별명이다.

부처님 시 423게송 담아
총 네 묶음으로 나눠 구성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동화와 유물로 보는 절집 하루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절집의 어떤 하루' 展
5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
〈바보동자〉 그림동화 원작으로 전시스토리 재구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화와 유물로 절집의 하루를 보여주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하 회암사지박물관)은 5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절집의 어떤 하루'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의 생활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회암사지박물관이 지난해 4월에 열었던 '대가람의 뒷간' 전에 이은 전시다.

이번 전시의 특색은 종교와 연령대를 넘어 많은 계층과 공감하기 위해 사찰에서의 생활을 담은 동화 〈바보동자-정찬주 作, 정윤경 그림, 어린이작가정신, 2017〉 원작의 그림을 변형하여 관련 유물 100여 건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사찰의 생활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절집은 생활공간으로서의 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조선전기의 거대한 왕실사찰이었던 회암사는 최대 3천여 명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만큼 그 규모와 사세가 대단했다. 현재 회암사 터에 남아있는 맷돌, 우물, 해우소터, 온돌 유구 등을 바라보면 그 규모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전각은 물론 많은 유물 중에서도 옛 회암사의 생활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현재 유물은 주로 기와와 도자기에 거의 한정되어있으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한 생활양식에 대해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를 무대로 한 가상의 하루를 이야기로 설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머물렀을 대가람의 하루를 통해 절집의 일상을 이해하고 그 일상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수백 년 전 회암사의 생활상을 짐작해 본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절집의 일상'이다. 동자는 이른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과가 고되기도 하지만, 절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기대감에 동자는 법당으로 향한다. 불전사물의 울림을 들으면서 부처님께 아침예불을 올리고 나서 동자는 하루의 일을 시작한다.


정윤경 作, 승방 동자.

△제2부는 '절집의 노동'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백장청규〉)는 말처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 절 안팎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동자도 뒷간 청소에 나선다. 뒷간은 청소할 때는 힘이 들지만, 농사의 기본인 거름을 생산하는 즐거운 일이다. 농사, 청소, 음식준비 등 여러 노동으로 부산하게 돌아가는 절집의 광경을 살펴보고, 동자는 든든하게 공양을 마친다.

△제3부는 '절집의 손님'이다. 임금님이 절집을 방문하는 날이라 모든 경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큰 스님들은 평소보다 위풍당당하게 의복을 갖추고,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손님맞이에 한창이라 경내는 즐거운 광경으로 가득하다. 동자는 여기저기 즐겁게 둘러보다가 먼발치에서 임금님의 행차까지 눈에 담고, 특별했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이 든다.

교성곡으로 듣는 '용성'과 3.1운동

3.1운동 및 독립선언 100주년 음악회 교성곡 '용성'
6월 9일 오후 4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 열려


용성 스님 진영.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6월 9일 오후 4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3.1운동 및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음악회 교성곡 '용성'을 개최한다.

서울특별시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교성곡 '용성(원작 도문 스님, 작시, 목정배, 작곡 박범훈)'은 백용성 스님의 삶과 역사, 탄생과 유년 시절, 출가와 시련, 그리고 3.1운동에서 대각운동까지 이어지는 스님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며, 국악관현악반주와 합창, 독창과 무용 등 모든 장르를 결합한 한국전통음악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에 불교계를 대표해 참여한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과 백용성 스님(1864~1940)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3·1운동에 있어서 불교계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특히 백용성 스님은 만해(萬海) 스님의 권유로 3·1운동 직전 참여한 정도로만 알려졌다.

근세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용성 스님은 3.1운동의 실질적 기둥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전통불교 죽이기에 맞서 항일 불교운동을 일으켰고,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찬불가를 보급하는 등 포교에도 업적을 남겼다. 3.1운동 참여후 1년 6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스님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 스님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나가는 종속국이 되지 말고, 주인다운 주인이 되는 주인국이 되어라"고 유훈을 남겼다.

지휘는 박범훈(불교음악원 원장), 노래는 김성녀(불음합창단 예술감독), 유희성(서울예술단 이사장), 연주는 봉은국악합주단 중앙국악관현악단, 합창은 불음합창단 및 불교합창아카데미, 명법사합창단, 봉국사합창단, 봉은사소년소녀합창단, 메트오페라합창단 등 총300여 명이 출연한다.

박재완 기자

고려사경의 르네상스를…

정향자 사경가 개인전
5월 30일까지 광주 U갤러리



정향자 사경가가 5월 30일까지 광주 U갤러리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부분 36×1050cm 감지금니, 권자본 / 고려(1334년) 보물 제752호 호림박물관 소장 모사복원' 〈사진〉, '관세음보살과 보문품 게송 95×100cm' 등의 정 작가의 고려사경과 성경사경, 궁중민화까지 선보인다.

정향자 사경가는 '조선시대 관음경전의 사경제작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남대 서예학과에 입학한 후 현장 스님과의 인연으로 사경을 시작했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사경부분 특선 등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전통사경문화를 확산시키고 사경인구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 사경가는 "고려감지금니사경은 왕실발원 사경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왕실의 후원으로 경필사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오직 사경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국보나 보물과 같은 훌륭한 문화재로 사경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사경을 계승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소질을 계발하여 우수한 청년작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정에서 양질의 전문 교육이 필수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종교단체나 개인의 후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름다운 사경전통의 계승발전으로 예전 고려시대의 사경문화가 다시 한 번 르네상스를 맞이하기를 염원합니다"며 "감지금니사경이 우리나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위상을 높이기를 기원합니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숯보료Q : W 15300 × D 2030 × H
숯보료SS : W 1000 × D 2000 × H 90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한국사 중심엔 불교사가 있다"

주목! 학술서 – 고영섭의 〈한국불교사 궁구〉 1 · 2권

韓불교사 3부작 중 마지막
1500쪽 걸쳐 통사적 탐구
시대별 불교 변화 등 담아
"역사 알아야 불교 바로 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궁구.(窮究)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다' 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17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역사학적으로 무한한 광맥을 지녔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내놓은 연구저작물 〈한국불교사 궁구〉는 1700년 한국불교사를 시대와 주제별로 분류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는 고 교수의 전작 〈한국불교사 연구〉 〈한국불교사 탐구〉를 잇는 한국불교사 3부작의 마지막이기도 하다.

총 2권으로 이뤄진 〈한국불교사 궁구〉는 총 1500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저자는 △고대불교, 전래와 수용 및 공인과 유통 시대 △고려불교, 심화와 확장 및 내화와 외화시대 △조선불교, 자립과 자생 및 선지와 교문시대 △대한불교, 국난과 법난 및 재구와 부흥시대 등 4부로 나눠 한국불교사를 살핀다.

한국 고대불교의 전래와 수용을 조명한 1부 '고대불교, 전래와 수용 및 공인과 유통시대' 에는 8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국 고대불교의 형성과 지형' 에서는 실크로드를 거쳐 전해진 고대불교가 어떠한 지형도를 그렸고 어떤 인물들에 의해 주도돼 왔는지를 검토했다. '가야 명칭의 어원과 가야불교의 시원' 에서는 가야의 명칭이 붓다의 오도처인 부다가야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구려 혜관이 일본 삼론학에 미친 영향' 에서는 고구려 출신 혜관이 수나라 유학 이후 일본 삼론종 2조로서 일본 삼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명했다.

'신라 원측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과 '정중무상의 무념관' , '구화 지정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은 신라 왕손 원측과 왕자 무상, 지장 스님이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2부 '고려불교, 심화와 확장 및 내화와 외화시대' 는 고려불교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다. 8편의 논문 중에서는 '〈삼국유사〉 흥법편 아도기라 조의 고찰' 을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해당 논문을 통해 고구려불교 재전자인 아도와 신라불교 초전자인 아도를 구분하고 아굴마의 아들 아도가 신라불교의 초전자였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승군의 역사와 성격' 에서는 승군이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불교 특유의 것이라는 사실과 고구려 안시성 전투로 시작된 승군이 고려 · 조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조명했다.

조선시대 전반을 조명한 3부는 자생적 불교를 보였던 조선불교의 특징을 조망한 연구 논문들이 수록됐다. '조선 후기 불학의 실학적 성격' 에서는 유교 성리학 재편과정에서 시작된 실학의 개념을 불교의 중도 실제학의 개념으로 풀어감으로서 조선 후기 실학시대에 불학이 자기 정체성을 모색했는지를 검토했다.

조선 후기 불교계 지성인들이 어떻게 역사와 시대를 바라봤고 불교사상이 개화사상과 어떻게 접목됐는지를 살핀 '조선후기 불교계의 지성인 형성기반' 도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격동의 시대를 다룬 4부에서는 국난과 법난을 극복하고 교단을 재건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망했다.

고 교수는 "한국불교사는 한국사의 마중물"이라며 "한국불교가 시대 주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탐구와 다른 궁구라고 해서 마지막이란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파고든다' 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불교사에 대한 나의 '궁구' 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鮮末 고승 문집 · 의식집 한글본 발간 잇달아

〈월파집 · 해붕집〉 등 한글화
주해 〈석보상절〉 23, 24권도



조선 후기 고승들의 시문집과 의식집 등이 한글로 번역됐다.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월파집 · 해붕집〉, 〈석문상의초〉, 주해본 〈석보상절〉 23, 24권을 번역 · 출간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번역된 〈월파집〉은 청허 휴정의 7대 적손인 월파 태율(月波兌律, 1695~?)의 시문집이다. 스님은 묘향산에서 출가한 후 영호남의 승경과 사찰을 많이 유력(遊歷)하였으며 또 30여 년을 묘향산에서 수행했다. 180여 수의 시와 산문 '향산지' 는 선과 교, 염불을 함께 수행한 당시의 삼문수업(三門修業)의 수행풍토와 서방정토관(西方淨土觀)과 유심정토관(唯心淨土觀)을 동시에 인정했던 당시 불교의 상황을 알게 해준다.

〈해붕집〉은 해붕 전령(海鵬展翎, ?~1826)이 저술한 문집으로, '해붕천유법어' 1편과 조사들에 대한 경찬(敬贊)과 시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여러 조사, 강백들의 인간상과 수행상의 면면을 음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입문서로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석문상의초〉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교 상례에 관한 최초의 의식집이다.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 당시까지 정리되지 못한 승가의 상례를 정립하기 위해 1636년에 편찬했고, 제자인 백곡 처능이 1657년에 징광사에서 간행했다. 〈한국불교전서〉(동국대 출판부) 제8책에 한문으로 수록된 〈석문상의초〉, 〈석문가례초〉, 〈승가예의문〉과 제11책의 〈자기문절차조〉을 함께 묶어 번역한 것이다. ABC사업단은 "이 책은 불교 전통의례를 토대로 현재의 의례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발간된 〈석보상절〉 주해본 23, 24권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역주 작업의 결과물이다. 〈석보상절〉 세종 29년(1447) 총 24권으로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권 3, 6, 9, 11, 13, 19, 20, 21, 23, 24의 10권만이 남아 전해오고 있다.

23권의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는 모습으로부터 다비, 사리분배까지의 열반상(涅槃相)을 기존의 〈석가보〉의 내용에서 취하고, 본격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반열반을 다루는 〈대반열반경후분〉의 내용을 다수 수용했다.

24권은 석가모니 입열반 이후 불경의 결집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부처님 반열반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부촉받은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왕사성 칠엽굴에서 제1차 결집을 개최한 내용과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왕(아육왕)이 불교에 귀의해 전국에 팔만사천의 탑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다.

신성민 기자

학술단신

서유기, '인문학'으로 읽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5월 29일 불교인문학 특강

성태용 前 교수 초청해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서

동양 고전 〈서유기〉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5월 29일 오후 3시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순표 세미나실에서 '삼장법사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 손오공과 함께 가보는 참사람의 길' 을 주제로 '제16회 불교인문학특강' 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 강연자로는 〈어른의 서유기〉 저자인 성태용 前 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나선다. 강연에서 성태용 前 교수는 〈서유기〉가 불교를 주축으로 하고 도교를 방계로 해 불교와 도교의 수행 과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고전임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서유기〉에서 삼장법사 일행은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여섯 도둑을 만나는데 '안간희' (眼看喜) · '이청노' (耳聽怒) · '비후애' (鼻嗅愛) · '설상사' (舌嘗思) · '신본우' (身本憂) · '의견욕' (意見慾)이다. 이 이름들은 인간이 지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의식과 그것들의 작용, 여러 마음에 일어나는 정서를 의미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특강은 기이한 모험담으로 알려진 고전문학인 〈서유기〉가 불교나 도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대중들에게는 종교적 수행 과정을 담은 경전으로,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6년 9월 불교인문학 강좌를 개설한 이래 15회에 걸친 특강을 개최했다. 일반 학자는 물론,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의 하나로 특강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신성민 기자

원효 〈열반종교〉 번역 출간 학술대회

울산대 원효학硏, 6월 1일 개최

원효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원효 전서 해석적 번역 사업을 진행 중인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소장 박태원)가 〈열반종요〉 출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울산대 인문대학 14호관 218호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효와 관련한 자유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의 시작은 박태원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장의 '원효의 서로 열고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설렘'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알린다.

또한 김성철(금강대)의 '원효의 불성관' , 이혁주(연세대)의 '스피노자와 원효: 자유인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 발표된다.

만해 스님 독립운동 의미 조명한다

선리연구원 6월 4일
선학원서 추모학술회의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재)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서 '만해 한용운 75주기 추모 학술회의' 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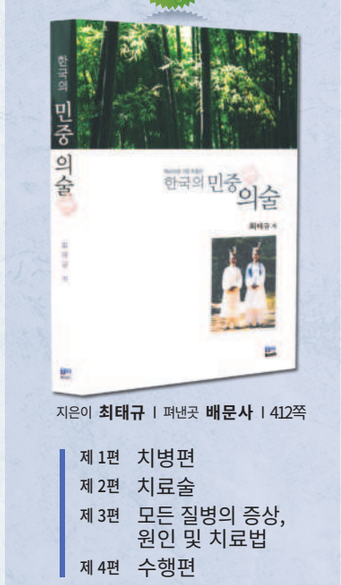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과 독립운동'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의 '자유와 평화를 지향한 한용운의 독립운동'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의 '한용운의 자유 · 평등사상과 독립운동'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의 '만해와 선학원-재산환수승소 판결문을 중심으로' 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경순(연세대 철학과 박사과정) 씨가 참여한다. 이와함께 선학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3시 나루아트센터서 만해 예술제를, 6월 29일 오후 4시에는 AW컨벤션센터에서 만해 추모제를 잇달아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박재완의 PhotoEssay



목어와 나비와 나

5월은 어떻게 가고있나
담장마다 붉은 장미는 피고
새나 사람이나 하루는 짧고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만나야 할 것들
잊어야 할 것들

숲의 나무였던 木魚와
잠이 삶이었던 나비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시절
이 5월이 또 그렇게 가고 있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㉝ 손경산 스님

화합과 수행 강조한 선지식

경산 스님은 나의 은사 스님이다. 스님은 함경도에서 출가해 처음에는 철저하게 수행에만 정진하는 선승이었으나 비구와 대처간의 문제가 정리되면서 종단 일을 맡게 됐다. 경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으며, 동국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나는 교도소 출소자 중 한 사람을 출가시킨 적이 있다. 법명은 자순이다. 그런데 그 스님은 출가할 때의 초발심을 잊고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일삼았다. 산중에서 자순 스님과 같은 폭력을 휘두르는 스님을 제지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었다.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수행에만 정진하겠다던 자순 스님은 산중 사람들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 스님들에게 갖은 행패를 일삼았다. 수행중인 큰스님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부처님의 삼보정재를 혼자 먹어서야 되겠소?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주먹을 앞세워 협박을 해오면 힘없는 스님들은 절 운영자금을 자순 스님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자순 스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종단 분쟁의 와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이용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게도 많은 원망이 따랐다.

경산 스님이 성자암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당시 경산 스님을 모시던 이는 나이 많은 비구니였다. 그 비구니는 경산 스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마치 부처님을 모시듯 했다.

경산 스님을 찾아온 자순 스님은 뜻대로 돈을 얻지 못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자순은 문중의 모든 대중을 대신하여 경산 스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그 노 비구니가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서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고 있었다. 노비구니의 비명소리에 놀란 경산 스님은 대경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산 스님이 대노하여 호통을 치자 자순은 노장조차 비웃으며 유유히 성자암을 나갔다. 자순이 성자암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이 문중의 모든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경산 스님을 모시는 대중은 나를 몹시 원망했다.

경산 스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했을 때 경산 스님은 오히려 나를 달래 주셨다.

"삼중 스님이 내게 죄송할 것이 뭐 있어? 그놈 일은 그놈이 저지른 일이고, 삼중 스님은 오히려 사람 만들려고 한 일이니 개의치 마라."

그것뿐이었다. 그 뒤에 경산 스님을 뵈었지만 경산 스님은 자순의 일을 한 번도 재론하지 않았다. 명경(明鏡)과도 같은 심성과 아량을 가진 경산 스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내가 경산 스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한때 대중들과 함께 청송의 중앙산 중앙암에 머문 적이 있다. 그때 같이 지내던 대중들 중에는 출소자들도 있었다. 재소자들과 함께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계획하던 무렵이었다. 그때 중앙암의 본사 주지였던 의현 스님과 황진경 총무원장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중앙암 큰 절의 주지였던 곽동선 스님은 경산 스님과 함께 금강산에서 출가하여 함께 불교 교리를 배웠지만 오히려 경산 스님보다 출가 시기가 빠른 스님이었다. 그 분쟁으로 경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다. 곽동선 스님은 내게서 약점을 잡지 못하자 자순의 행실을 거론하며 나와 대중이 중앙암에 머물 수 없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경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경산스님(우측)과 삼중스님이 마주앉아 대화하고 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았던 스승
넓은 품으로 대중 허물 포용

"자식이 많다보면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상좌가 많다보면 이런 상좌도 있고 저런 상좌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문제가 이유가 될 수는 없소."

경산 스님은 언제나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 대중들을 대했다. 한 번은 자순 말고도 또 다른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 재소자에게 계를 준 적이 있었다. 그 재소자는 경산 스님이 머무는 절에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 그 재소자가 온 뒤로 자주 사중의 돈과 물건이 없어져 대중이 문단속을 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대중공사가 열리게 되었다. 대중공사에 참석하여 대중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경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삼중은 지옥에 가서 교화를 하고 다니는데 겨우 지옥에서 나온 이 사람을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낸다니, 그것은 안 될 말이다. 도리어 중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하거늘 잊어버릴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처럼 경산 스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보다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 아래에서 언젠가는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스님이었다. 그리고 경산 스님은 분쟁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다.

내가 중앙암에 있을 때, 큰절 주지 스님과 어느 보살이 지은 암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생겼다.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나를 찾아 중앙암에 오신 경산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소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나섰다. 나는 경산 스님에게 중간에 끼어들어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중이 되어서 분쟁을 보고 외면하면 안 되는 일이야. 화해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일이고 일단 분쟁을 만났으면 결코 그냥 피하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나는 경산 스님의 말씀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산 스님의 말씀은 설법이었기 때문이다.

경산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산꼭대기에 위치한 암자까지 올라 보살을 만났다. 경산 스님은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까지 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듣자하니 저 밑에 있는 주지하고 싸운다면서요? 재판 취하하세요."

하지만 보살은 큰절의 주지 스님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경산 스님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믿고 취하하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경산 스님은 보살을 설득할 생각이었다. 나는 경산 스님 뒤에 앉아있던 보살에게 우선 경산 스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눈짓을 보냈다. 경산 스님은 보살에게서 재판을 취하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암자를 나왔다. 그리고 큰절의 주지인 곽동선 스님에게 보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역시 재판을 취하하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경산 스님이 떠난 뒤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새삼 경산 스님이 그리운 것은 현재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불교 내 갈등들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경이 들어서다. 화해와 화합을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강조하는 경산 스님의 말씀과 행동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리=박재완 기자

